

대학 국어교육 실태 점검

이제 사회는 한국어 인재를 필요로 한다

정부, 기업 국어실력 평가비중 늘려 ... 국어강좌 증설 등 제도 마련 시급

국어 능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왔다. 국어능력인 맞출법과 표준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논리를 갖고 사고하는 총체적 능력을 기리겠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과 교육이 부족할 경우 나아가 자신의 전공 수업 학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현 대학생의 국어실력을 살펴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본다. 편집자

현재 국회에서는 국어 능력 향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어기본법'을 심의중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교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개설해 취업시 필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또한 각 시, 도의 몇몇 대학에 국어 상담소를 설치해 학생들이 국어 문법이나 어휘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승재 씨는 "앞으로는 토익점수 이상으로 국어능력 점수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학에서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취업전선에서도 국어능력 검증이 필수 관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점차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2005년도 예비사원 공채에서 최초로 '국어 능력시험'을 도입했다. 이번 시험은 응시자의 듣기, 말하기, 쓰기 등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송국도 한국어 능력 관련 시험을 준비 중이며 올해 외무고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행정고시, 기술고시에도 우리말 구사 능력과 추리력 등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대학생 국어실력 저하 심각
이처럼 국어 능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국어 실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사회학과 양영진 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살펴보면 문법이나 어휘가 틀리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 글의 논리 구조조차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며 "고등학교에서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다보니 사고력이 떨어지고 이는 언어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요즘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동안 논리적으로 사고할 기회가 옛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한국어를 오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암기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토론, 발표수업, 논술 등 제대로 된 한국어를 학습 기회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에서 역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교양 필수로 '국어작문의 이론과 실제' 강좌

가 개설돼 있지만 이 역시도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해 국어교육과 김해숙 교수는 "국어작문 시간에는 어휘나 문법, 구조 등을 가르치기보다 작품을 읽고 이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학교도 다른 대학처럼 국어 교양필수 강좌를 늘리고 현재 국어교육과에 개설 중인 '표준어와 정서법' 같은 강좌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타대학 국어교육 강화 추세

실제로 서울대는 현재 국어교양필수 과목을 60여개 개설했으며 연세대로 2001년부터 국어교양필수 과목과 별도로 글쓰기 수업을 개설해 졸업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강좌 증설뿐만 아니라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학내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며 보고서 작성법 상담, 논문 쓰기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글쓰기 교실 김준성 연구원은

"학생들의 말하기, 글쓰기 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연구원들이 1년간 국어교육 관련 제도를 준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로 국문학과 교수들이 모여 글쓰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연구 중에 있다.

홍기삼 총장은 취임 후 학생들의 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하나로 현재 교육기획단은 200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모든 전공실력과 외국어 실력에는 국어실력이 토대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국어능력 저하를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 개편에서 국어 관련 과목 증설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역시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총학생회 보궐선거 실시

내일(3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시작

36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9월 14일부터 3일 간 치러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학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제직됨에 따라 남은 3개월여 공백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선거 세칙 규정에 의한 것이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중문4)는 지난 27일 회의를 거쳐 이같이 선거 거일정을 결정했으며, 후보자등록은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대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출마자격은 △

6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 △후보자 추천을 6백명 이상 받은 자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총대 김동우 비대위원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다음 3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 운동은 9월 9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이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총학생회는 비대위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37대 총학생회 선거는 예정대로 11월 중순에 치러진다.



이런학기도 잘 ... 지난 27일 단과대 풍물패 연합(의장=이종규·불교2)이 새 학기를 맞아 동국관 앞에서 개강굿을 벌였다. 정기훈 사진부 객원기자 tal@dongguk.edu

IT분야 해외연수 9월 8일 출발

본교생 21명 참가 ... 6개월 간 캐나다로 연수

'2004년도 IT분야 해외연수 지원사업 발대식'이 오는 2일 오후 4시 30분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진행 된다.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이번 IT연수에는 본교 21명의 학생이 참여해 해외우수 IT전공교육을 학습한다. 서류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된 21명의 학생은 정부로부터 950만 원을 지원받고 학교로부터 70%의

장학금을 수혜받는다.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이 해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전 공 15학점, 영어 3학점으로 최대 18 학점까지 인정해준다.

참가자들은 오는 8일 출발해 6개월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수하며 지역사회를 탐방할 예정이다.

필동병원 건물 활용 논의 진행

2006년 2월 리모델링 완공 예정

중대 필동병원 공간을 2006년도 1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무처 시설관리팀은 필동병원 설계부분 입찰 공고를 낸 상태이며, 설계 업체를 선정 후 구조물 안전검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5월 경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착공 후 완공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필동병원 공간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간구설무소위원회가 각 공간에 대한 기획안을 기획심사팀(팀장=박동수)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는 공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번 학기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광호 계장은 "현재 연구안만 있을 뿐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말했다.

본 사 사 령

◇ 임 차 장

▲ 대학부 1차장
=황주상(불교대 인철2)

▲ 대학부 2차장
=김지희(사과대 사회2)

▲ 기획부겸 여론부 차장
=김지은(사과대 신방2)

▲ 문화부 차장
=최민희(사과대 신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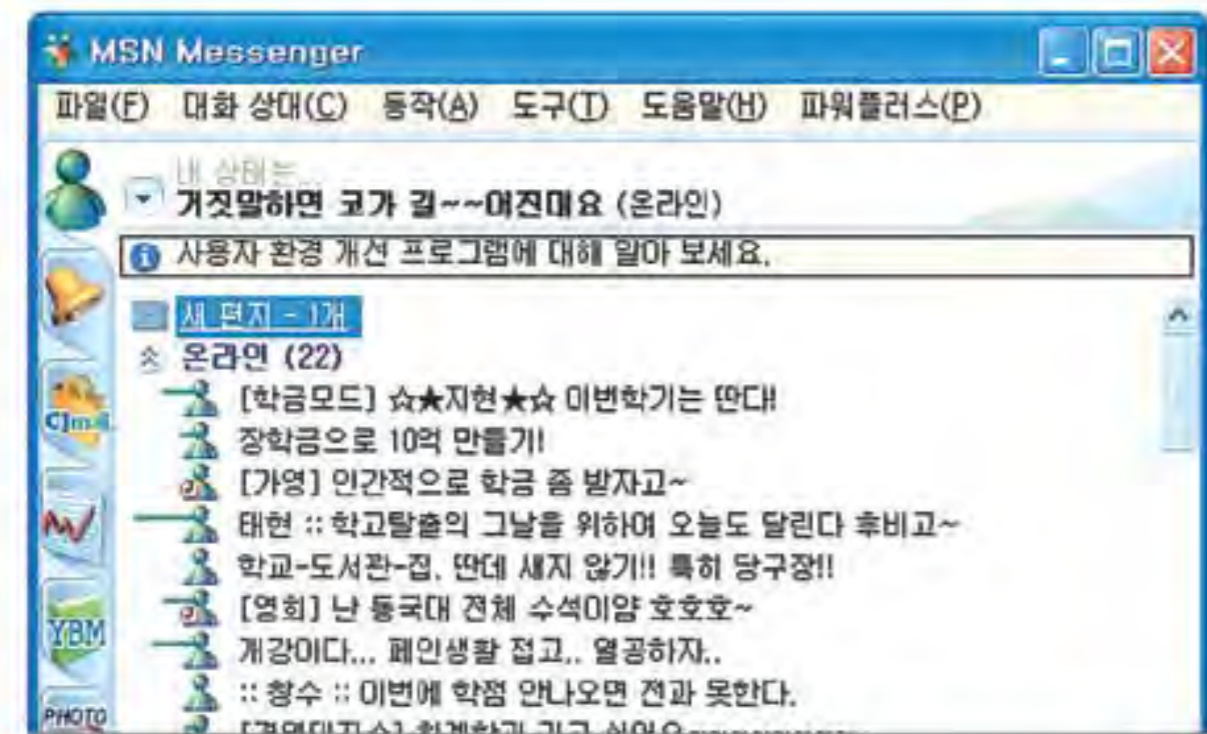
-이상 8월 30일자

신규교수 프로필 5면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6, 7, 8면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새학기 계획, 일주일동안 얼마나 지키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때!

여러분의 다짐, 끝까지 지키세요!

생협, 조합원 할인혜택 늘려

마일리지 카드 발급 ... 다양한 혜택부여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방침에 따를 것”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조합원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생협이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을 중심으로 학내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4일부터 서점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카드발급이 실시됐다.

이 카드는 서적을 구매하면 1천원에 25원이 적립되며 1천원 미만의 단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립금이 5천원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하며 서적을 구매할 때 적립금만큼 할인된다.

또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추석귀향버스’ 사업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

이다.

하지만 진행 시기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덕수·역교3, 이하 학복위)와 논의 중이어서 정확한 시기는 오는 9월 17일에 있을 생협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학복위원장은 “현재 학내 구성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해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생협은 이 밖에도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정장학금’ 등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식대의 3%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학복위에서 대어해주는 우산과 운동기구 등을 조합원에게로 혜택을 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김용문 팀장은 “앞으로 생협은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협은 조합원 가입신청을 해화관 생협사무실에서 상시로 받고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서점 앞에서도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다음해부터 가입 신청서를 각 가정으로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1만원에 1구좌인 생협 구좌를 1구좌이상 출자하는 것이며 총 출자수의 5분의 1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졸업, 퇴직 등으로 탈퇴할 때 원금과 이에 대한 배당금을 돌려준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휴(休) ... 시설관리팀이 지난 24일 특별한 용도가 없던 원음관과 120평 규모의 공간을 ‘백송쉼터’로 만들었다. 이는 그동안 원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식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사회학과 K교수 수업 동일강좌 개설

K교수 해임 및 사퇴 촉구 활동 계속될 듯

사회학과 K교수 강의 교과목과 동일한 강좌가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됐다.

동일강좌 개설은 그동안 사회학과 학생들이 전공 커리큘럼 보장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

현재 49명이 이 과목을 수강신청한 상황이며 K교수 강좌는 12명이 세계 속에 한국 불교를 알릴 것으로서 한국 불교학을 세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민지(사회3)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그동안 학생

들이 전공수업을 수강하지 못해 피해가 있었으나 학습권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학과 학생회는 이번학기에 K교수 해임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연계외부 활동으로 여성주의자연대회의와 함께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커리큘럼 보장, 성폭행 노출 위험 방지교육,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K교수는 M양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K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학복위, 가을학기 특강 접수

다음달 13일부터 5일간 ... 영어·한방 특강 개설

학생복지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학복위 사무실에서 가을학기특강 접수를 받는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13일부터 5일간은 추가접수 및 공개강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 수업을 듣고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강좌는 YBM 등 3개의 업체에서 참가하여 각각 기초종합반, 문제풀이반, 문법반 등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4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 선이다.

또한 한방특강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컴퓨터 특강도 열린다.

이 밖에도 학복위는 과목별 도우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도우미들은 모니터일지 작성과 강의 진행 도와주기 등의 일을 하며 특강이 끝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는다.

하지만 이전에 도우미를 했던 학생들은 접수할 수 없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학복위 홈페이지(www.dghakbok.net)가 운영된다.

홈페이지에는 △물품대여 및 소개 △학내복지 관련 부분 건의 △학복위 특강안내에 관련된 이용을 할 수 있다.

‘에코포럼’ 준비위 구성

지난 19일 불교생태학 특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홍기삼·국어국문학)는 ‘에코포럼’ 준비위원회(위원장=박경준·불교학) 구성을 결정했다.

‘에코포럼’은 생태환경에 관한 학문분야의 학제적 교류를 통해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개방적 토론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개방적 학술포럼의 성격을 띠며 매월 1회 정기적 학술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한 학술토론회의 기초발제문과 토론결과를 출판부에서 기획하는 ‘불교생태학총서’로 발간된다.

제 1회 정기포럼은 다음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세계불교석학 초청특강

카츠라 쇼류 교수, 인도불교학 회고 등 강의

‘세계 불교석학 초청 특강’이 오는 3일과 6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강의는 불교문화연구원(원장=박경준·불교학)이 주최하는 것으로 일본 료교구 대학의 카츠라 쇼류 교수가 △인도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법정의 타심 존재 논증을 주제로 강연한다.

카츠라 쇼류 교수는 동경대 문학부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하리바르만의 ‘따프바싯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업지도교수 장학 신설

우수장학 신청자 중 교수 추천 받은 학생 대상

총장 장학 제도의 변경으로 장학금액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잔여 장학금액을 ‘학업지도교수 추천장학금’으로 변경, 시행하여 보충할 예정이다.

이는 학업지도 교수의 학생지도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해당학과의 특성화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각 교수별로 한학기당 1명의 학생을 선정, 추천하는 제도이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매 학기별 우수 장학 신청자 중 △해당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자

에 한해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다. 또한 17학점 기준으로 평균 평점 3.0 이상을 취득해야 추천 가능하다.

각 교수별 추천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추천된 학생들은 장학과에서 자격 기준 심사가 이뤄진 후 다음달에 결과가 나오면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학업지도교수 추천 장학 제도는 이번 학기에 한하며 2005학년도부터는 교육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학내 전기공급 중단

9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내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

이는 변전실 내 유압변압기 오일교체 공사와 구 중앙도서관, 회화관 고압 차단기 분리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도서관과 정보문화관은 정전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며 배양실 외 몇 곳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된다.

한편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팀장=백경선)에 연락하면 된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8/30)	소고기명탕 (1800) 닭조림 (2000) 두부김치 (2000)	너비아너구이 (18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치킨가스 (1800)	된장찌개 (3200) 떡김치찌개 (3500) 뉴지불고기 (3800)
화 (8/31)	부대찌개 (1800) 참치콘볶음밥 (1800) 불고기버림밥 (2000)	콩나물해장국 (1800) 쇠고기볶음밥 (1800) 탕수육 (2000)	된장찌개 (3200) 우거지갈비탕 (3800) 회덮밥 (3500)
수 (9/1)	살림탕 (1800) 제육갯잎볶음 (2000) 치킨샐러드 (2000)	쇠고기미역국 & 잡채 (1800) 돈육장조림 (2000) 비빔밥 (1800)	된장찌개 (3200) 콩국수 (3200) 이면수국이 (3500)
목 (9/2)	갈비김치떡볶이 (1800) 오징어볶음 (2000) 양송이햄볶음 (1800)	순만두국 (2000) 모듬볶음밥 (1800) 쇠고기양송이덮밥 (2200)	된장찌개 (3200) 오징어돌솥밥 (3500) 닭도리탕 (3500)
금 (9/3)	장터국밥 (1800) 라조육 (2000) 감자탕 (1800)	김치수제비 (1600) 자장밥 (1800) 관동기 (2000)	된장찌개 (3200) 스파게티 (3500) 이구찜 (3800)

금주의 추천메뉴

치킨샐러드 (동국관 수요일 석식)

바삭하게 튀겨낸 닭살에 양상추, 양배추, 오이 등 여러채소와 머스터드소스를 곁들였다. 신선한 야채에는 피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동악게시판

삼성전기 리크투링

9월 1일 ~ 3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취업자료실

손짓사랑회 28th 기초반 공개강의

9월 1일, 9월 6일
오후 6~8시 P405

29년 전통 동국아미아구부원 모집

대운동장 컨테이너 2층
감독: 정경희(010-4717-3544)

일어일본학과 개강총회

9월 3일 늦은 6시
명진관 A201, 회비 만원

동국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월, 목 늦은 6시 학림관 4층
회장(019-381-5663)

사학과 106차 추계대사

동학 농민운동 관련 총남, 전북
9월 15~9월 17일
회비: 7만원
연락: 03이승호(019-9303-7139)

현여울 신입단원 모집

학관 5층
늦은 6시 정기모임

자연과학연구회 신입단원 모집

발, 사진 관측회 학관 3층
회장(016-782-8618)

해병전우회 신입회원 모집

9월 2일 늦은 6시 불상 앞
회비: 1만 5천원
회장(016-9477-4901)

영화공동체 디딤돌 새내기 모집

학관 3층

취업

휴대폰 단말기 S/W개발

모집부서: 주임연구원, 연구원
응시자격: 전자/정보통신 관련 전공자 우대
접수기한: 9월 10일까지

청주대학교

모집부서: 국제교류
지원자격: 토의 850점 이상 또는 토플 580점 이상(CBT 237점)
중국어회화 가능자 우대
접수기한: 9월 3일까지

제일메디컬

모집부서: 국내영업부(남)
응시자격: 자연과학부 전공자
접수기한: 9월 4일까지

가이아 엔시

모집부서: 경영컨설팅, 마케팅, 광고홍보
응시자격: 경영학과, 의료정보학과 전공자 우대
접수기한: 9월 4일까지

아르바이트

동보해운항공

월급: 75만원(식대포함), 교통비 8만원 지급
근무기간: 장기
근무시간: 평일-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토요일-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
문의: 02)3702-9427

한빛학원

조건: 사회관련 전공자
월급: 40만원
근무시간: 오후 8시30분~오후 10시 15분
문의: 011-9637-6133

인사이트 코리아

조건: 20~26세(여)
시급: 3천5백원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2)3481-9044

인전무대

예고없는 벼락금

○...총장장학금이 변경된 후 일부 학생들은 정신없이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총장장학금 축소 비율에 대한 공시가 개강 직전에 이루어져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고.

이번처럼 장학금이 대폭 변경된 경우 해당학생이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예고 없는 총장장학금 축소에 상처받은 학생들을 치료하소서(!)”

서로다른 세계

○...‘다 잡은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생겼다는데.

알아보니 사회학과 학생회와 사회학과 K교수가 오랜만에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의 시간 개념 착오로 무산된 것이라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만 입장을 주장한 상황에서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기대에 부른 가슴, 전환 한 통화에 무너졌습니까(!)”

연착 사업

○...야간강좌 총학생회에는 난데없는 푸대처가 한 데미라는데.

알아보니 지난 학기 야간강좌 사물함의 철거 후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물건을 찾아가는 것과 찾아가지 않은 물건 처리 등이 원래 방향 중에 이뤄져야 했던 일임에도 학생회의 실수에 물건 주인들의 무책임이 더해져 새학기 시작 후에도 지난 학기 일을 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사건발생 두 달, 해결책은 미궁 속으로(!)”

모바일 양심

○...중앙도서관 2층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헤드셋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는데.

알아보니, 일부 학생들이 헤드셋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가져가버렸기 때문이라고.

양심을 저버리는 몇몇 학생들의 행동에 대비해 헤드셋을 컴퓨터에 고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헤드셋과 함께 학생들의 양심도 고정됐으면(!)”

이주의보고역사

동국관 식당 학교직영 영업화

91년 9월 2일 동국관 식당의 학교직영 영업을 시작했다. 91년도 상반기 학원자주화투쟁의 일환이었던 학생식당 직영화가 실현된 것이다.

이는 91년 7월 31일 동국관 식당 대행업체가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폐쇄되었다가 35일만에 학교가 직영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그 당시 후생복지과는 식당운영은 영양조리사 등 총 21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정부미를 일반미로 바꾸고 식판, 식기, 조명시설을 교체했으며 결상과 의자는 점차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무구정광다라니경 완전복원 성공

86년 9월, 복원위원회는 국가적 사업 가치를 가진 다라니경 복원을 본교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정해 완전복원에 성공했다.

복원위원회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불교종립학 교로서 우리 민족의 불교문화 유산을 전승하고 한국 불교문화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학술적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86년 9월에 복원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은 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는데 그 보존상태가 매우 남아 전체 부분 가운데 1/2정도가 중간에 1행 내지 2행이 부식되어 그 복원사업이 시급했었다.

신임 연구처장 인터뷰

“교수 연구 활성화 적극 지원”

연구년 개선 등 우수대학 벤치마케팅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또한 연구년 제도 개선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다.

-전국대학평가 순위에서 연구업적부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순위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 학교 교수들이 예전보다 연구를 적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니는데 다른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다보니 경쟁에서 조금씩 밀렸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각 계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가 탁월한 대학들의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자매대학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16개국 59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교류의 첫 번째 목표인 학생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2단계 목표인 국제적인 연구교류 및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중국 칭화대학 등 해외 우수대학과 교류를 넓히려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최성민 기자 kwertewq@dongguk.edu

36대 정·부총학생회장 제적 논란

총학생회 - 성적 처리 의혹 제기

학교 - 학점은 교수의 엄정한 권한

36대 총학생회장(구자룡·야간영문4, 이하 전 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승호·국교4, 이하 전 부총회장)이 지난 학기 학사경고 누락으로 제적된 가운데 당사자들이 성적 처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대자보를 통해 성적처리과정에서 담당 교수의 판단 외에 학교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학기 전 총회장은 담당 수업 교수에게 'D' 이상만 받으면 제적을 면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했지만 담당 교수는 "학칙상 출석이 1/3 이상이 되지 않으면 F학점을 줄 수밖에 없으나 4학년

년인 점을 감안해 D'를 줬다"며 거절의사를 밝혔다.

또한 전 부총회장은 출석이 1/3이 되지 않았고 기말고사 며칠전 수업 종료로 당장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담당교수는 "학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담당교수들이 학교로부터 "성적처리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주봉 교무처장은 "매학기 말에는 엄정한 심사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전 교수들에게 보낸다"며 학교측의 개입의혹을 부

인했다.

이후 전 총회장은 교무처장을 만나 "이번 제적은 학교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며 이는 학생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무처장은 "학점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담당교수만의 권한이며 이번 제적사건은 학교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한편, 총학생회 비대위는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제적사건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동약로

학생회비(非)



“왜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돈을 무조건 내라는 것은 강제징수 아닙니까?”

“학생회비를 내야만 등록이 된다니까요?”

학기 초 등록금 납부 기간동안 종종 학생과 재우회계팀 직원간의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일부 학생들의 학생회비 환불 요구는 비단 오늘, 내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번 학기 들어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늘고 항의 방법도 거세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학생은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회비 부분을 오려내기도 하며 일부는 학생회비를 왜 번리 고지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측에서는 항의하는 학생수가 늘었다는 점과 학생회비가 선택적 고지 사항임을 감안해 일부 환불 조치를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항의는 8천원의 돈을 환불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회비 환불이 큰 성과이며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불 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며 환불을 권유하기도 한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 부족과 몇몇 학생들의 무조건적 비난으로 학생회가 학생들 사이에서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학생회는 명백히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또한 학생회비 역시 그들의 사적인 비용이 아닌 대중적 준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아직 학생회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서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무언가 쓸쓸함을 남긴다.

고지서를 올려내기 보다는, 학생회를 무조건 비난하기 보다는 자신이 요구하는 바와 비판할 점을 명확히 제시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연극학과 워크숍 공연

5개작품 ... 9월 16일까지 예술극장서

2004학년도 연극영상학부 연극학과 하계 Workshop 공연 '5plays'가 9월 16일까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작품은 △서민귀족(The Middle Class Gentlemen)/폴리에트 작, 서민희 연출, △플라자 스위트(Plaza Suite)/닐 사이먼 작, 우경준

연출, △버스정류장/가오성진 작, 안형민 연출 △한강은 흐른다/유치진 작, 이강혁 연출 △선달의 간계(스카펠의 간계)/폴리에트 작, 박성일 연출로 지난 25일부터 3일 간격으로 한 작품당 3일 씩 공연한다.

중도 기간제 보관함 신청

9월 1일 선착순 접수

다음달 1일 중앙도서관에서는 2004학년도 3/4분기 기간제 보관함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본교 재학생과 휴학생 300명으로 사용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새벽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장소는 중앙도서관 2층 도서 반납 창구이다.

월 사용료는 3천원으로 배정 시 3개월분인 9천원을 내며 보관함 사용료는 전액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가을학기 어학 특강 접수

오는 9월 3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이 가을학기 어학 1차특강 접수를 9월 3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받는다.

강좌는 △원어민 영어회화 I, II, III, IV반과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반, Resume & Report Writing반 △중국어 1 단계 △CNN정취반이 있으며 9월 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주 4회로 진행된다.

모집인원 및 수강료는 △원어민 영어회화=각 반 15명, 각 8만원 △중국어 1 단계=30명, 6만5천원 △CNN정취=40명, 6만5천원이다.

교수회, 군호봉요구 공문 전달

학교측, 재논의 진행중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가 지난 27일 학교측에 군경력 호봉반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교수회는 지난 2월부터 학교측과 군호봉 인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5월 학교측과 이번 학기부터 군호봉을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지난 7월 신입 처장이 취임하면서 군경력 호봉 반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 교수회장은 "이 문제는 개인간의 약속이 아닌 조직간의 약속이므로 새로운 처장 부임과 상관없이 군호봉 경력약속을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kwertewq@dongguk.edu

각 단과대 개강사업

각 단과대가 2학기 개강을 맞아 개강사업을 준비한다.

△불교대=지퍼파일 증정, 9월 1일~3일, K동 3층 중앙계단 앞

△경영대=각과 개강 총회에서 국보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 선전 사범대=사랑 나눠주기 △예술대=요구르트 나눠주기, 2학기 사업 홍보, 학생회장의 편지 작성, 8월 30일~9월 1일, K동 1층

△야간강좌총학생회=차 나눠주기 및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매주 월요일, M동 4층

패스제 토익 무료시험 첫 실시

01학번 졸업예정자 대상 ... 17일까지 접수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9월 18일 2001학년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패스제 토익 무료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01학년도 입학생 중 토익 졸업예정자 접수를 통과한 학생을 제외한 전 학생이 대상이며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 김영수 과장은 "이번 졸업 학년도가 패스제 토익 시험 첫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료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졸업예정자 600여명 중 현재까지 패스제 토익접수를 통과한 학생은 140여명 이다.

제1회 동국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1회 동국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 1.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오후 2시
2. 장 소 : 팔정도 불상앞(우천시 체육관)
3. 시상 내역 : 총장 장학금 독서 대상 100만원(1명)
총장 장학금 독서 우수상 70만원(1명)
총장 장학금 독서 장려상 30만원(1명)
4. 참가 자격
가. 본교 서울캠퍼스 재학생(학부생)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한다.
나. 최종 참가자 선정 및 공고는 9월 8일(수)에 한다.
5. 접 수
가. 신청자가 50명을 넘을 경우 최종 선정은 다독자(대출횟수/2004.3.2 - 9.3)순으로 선발한다.
나.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gu.ac.kr)에서 신청하여 접수한다.
(문의전화 2260-8622)
다. 방문접수는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B2)
6. 접수 기간 : 2004년 8월 23일(월) - 9월 3일(금)
7. 진행 형식
가. '도전 골든벨' 형태로 진행한다.
나. 인문, 사회, 자연, 불교, 도서관 이용등 각 주제 분야별 10문제씩 총 50문제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다. 문제는 각 주제 분야별 출제위원이 출제하며, 문제의 유형은 주제 분야에 관련된 일반적인 도서정보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라. 순위의 결정은 출제된 50문제에 한하여 다독정도에 상위 장학금을 시상하며 동점자의 처리는 첫째, 다독자를 우선으로 하며, 둘째 해당학기에 교내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로 하며, 셋째 연장자로 한다.
마. 대회중간에 탈락자를 대상으로 패지부활전을 실시한다.
8. 기 타
가. 참가자 전원에게는 도서상품권(5천원권) 1매를 증정한다.
나. 대회 진행을 위해 참가자는 모자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 장학금 수여는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간 및 장소를 추후 공고한다.

중앙도서관 · 학생처

불교문화연구원 주최

'세계 불교 석학 초청 특강 시리즈 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에서는 9월 3일(금)·6일(월) 양일간 동국대 다양한 세미나실에서 '세계 불교석학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불교논리학과 유식학(唯識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일본 료고구(龍谷) 대학의 카즈라 소류(桂紹隆) 교수를 초청하여 '인도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3일) 및 '법정(Dharmakīrti)의 타심(他心) 존재 논증'(6일)이라는 주제로, 2차례의 연구 현재까지 해외 학계의 인도불교 연구 방법과 성과를 알아보고, 불교논리학의 완성자로 평가되는 달마게르미(法稱, 600~660)의 유식 논리학의 학문 세계를 탐구한다.

'세계 불교석학 초청 특강'은 불교학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해외 학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그들이 전공 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국내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내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문화연구원에서 기획한 연속 특별 강연이다. 2004년 2학기부터 매학기 세계적인 불교석학 1인을 초청하여 2회의 강의로 진행된다.

2004년 2학기 특강일정

9월3일(금) 16:00 18:00 : 인도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9월6일(월) 16:00 18:00 : 법정(Dharmakīrti)의 타심(他心) 존재 논증
(장 소 :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

초빙교수 약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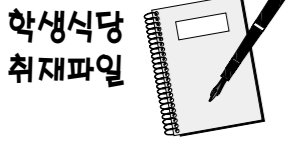
카즈라 소류(桂紹隆) (일본 龍谷大學)

- 京都大 문학부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 수료.
○ 1977년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하리바르만의 《파드바시디》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 京都大에서 문학박사 취득.
○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정교수 역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대학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 등에서 교환교수 역임.
○ 현재 류교구대학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
○ 현재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등 다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의 편집자 및 동아시아 책임자.
○ 현재 佛敎因明用語辭典 주권집자.
○ 저서와 논문에 《印度人の論理學》, How did the Buddhists prove something? -The Nature of Buddhist logic-, The Apoha Theory of Dignaga, Dignaga on trairupya, (Kumarila의推理論 - Dignagaとの對比) 등 40여 권이 있음.

2004-가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신청)

- 1. 신청 자격 : 재학생
2. 신청 기간 : 2004. 8. 30(월) 09:00 ~ 9. 1(수) 17:00
3. 동국 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시 : 2004. 9. 4(토) 08:20 ~ 17:00
나. 장소 : ▶ 특강 - 본교 중앙강당 08:20까지 시간임수
▶ 현장 체험 학습 - 한사랑 마을·향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 현장 체험 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 단, 예비교육은 최초 봉사 활동 신청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만 이수하면 됨.
다. 준비물 : 증식 및 간편한 복장 착용
4. 봉사활동 기간 : 2004. 9. 13(월) ~ 2004. 11. 27(토)
5. 봉사활동 방법 :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봉사활동 안내 자료 : 8월 30일부터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비치.
6. 봉사활동 대상 기관 : 김음증합사회복지관 외 180여개 기관
7.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방법
가. 학점신청 방법 : 재학생서비스(수) 수강신청) 사회봉사 학점신청
8월 30일(월) 10:00 ~ 9월 1일(수) 17:00 (※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
나.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다. 성적평가
(1) 학점 인정 : 가을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 인정
(2) 학점인정시기 : ▶ 가을학기 활동자(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를 기록하지 않음.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기까지 인정함.
■ 특 전 :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성적우수 장학금 선발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훈장수여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다학생생/동국참사람봉사단

동국참사람봉사단



학생식당의 음식 가격과 맛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지난 5월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음식의 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가격의 적절도와 이에 따른 음식의 질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음식쓰레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기획에서는 하루 이용하는 학생수가 약 2700~3000명으로 가장 많은 상록원 식당을 주요 취재대상으로 삼았다.

- 편집자



아침 8시 전날 주문한 물품들이 입고되는 모습



학생식당에서 사용될 쌀포대들



어제 사전처리 작업이 이뤄진 식재료들



육수가 곁들여 지기 전의 어묵꼬치우동

식단 작성에서부터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상록원의 분주한 일상 따라잡기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상록원 앞에 세워진 트럭과 트럭에서 실새없이 물품을 내리고 있는 사립들로 상록원 앞은 분주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 적이 없을 상록원 옆문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지하 창고 또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인해 지상 못지않게 활기차다.

오전 8시, 전날 주문한 물품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하나 둘씩 창고 안으로 운반되기 시작하고 물품의 양과 질을 점검하는 검수 작업이 시작된다.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 조리사 김호인씨는 전날 주문한 물품 명세서를 살펴보고 불건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요즘은 쌀의 품질이 대체로 떨어지는 시기라 쌀포대를 풀어 쌀알을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 해 보는 천우현 팀장.

지하에서 검수 작업이 이루어질 동안, 상록원 2층에서는 아침 배식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아침 메뉴는 어묵꼬치 우동이다. 커다란 냄비에

는 우동국물로 쓰일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50인분의 밥통이 3개 정도 들어가는 네모진 밥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통 하나가 방금 꺼내졌다.

미리 준비해 둔 어묵꼬치 우동 그릇에 육수를 붓고 이것을 밥반찬이 놓여진 식판위에 놓으면 배식 시작이다. 상록원의 하루는 이렇게 분주하게 시작된다.

적정가격 고려한 식단짜기

상록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영양사 1명, 조리부장과 차장, 조리사, 밥도, 찬모 등 정식 직원 22명과 청소, 배식, 세척 등의 일을 하는 일용직 직원 28명으로 총 50명이다.

배식 준비는 영양사가 일주일의 식단을 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주간식단 계획부 작성과 함께 진행되는데, 주간식단 계획부는 판매가 대비 원가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상록원은 이와 같은 제한된 가격으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메뉴가 외부 음식점처럼 다양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유진영 영양사는 "제한된 메뉴지만 학생들이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고 또한 계속해서 발전된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과정 물품 주문, 검수작업

다음 작업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참고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작업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수량과 함께 기록해 이를 토대로 식재료와 기타 물품을 신청한다.

물품 업체는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규모가 거래되는 업체의 경우 1년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우리학교는 총 50여개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대표적인 업체를 살펴보면, 대풍상회(쌀), 한강식육(고기), 부천농협(야채) 등이다.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야채류, 고기류, 유제품 등은 거의 매일 물품을 들어온다.

모든 물품은 앞에서 언급된 검수 작업을 거치지만 특히 식품과 같은 경우는 샘플 검사를 하고 조리를 하다 발생하는 식품의 하자는 즉시 담당 업체에 연락해 교환조치 하며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될 시 계약을 해제한다.

검수작업이 끝난 물품들은 쓰이는 식당별로 정리해 창고에 보관하고 그 날 사용해야 하는 물품들은 1층과 2층 식당으로 운반된다.

8시 30분에 시작되는 학생식당의 아침 배식은 아주머니 3명과 남자 조리사 2명이 주로 담당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 점심메뉴와 저녁을 준비하고 내일 메뉴 준비를 위한 사전처리 작업을 한다.

우리가 상록원에서 매일 먹는 음식은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우리학교 음식물 쓰레기 한달에 '40여 톤'

타대학 이벤트·인식교육 통해 음식 쓰레기 줄이고 있어 대조적

현재 우리학교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상록원과 동국관 등의 식당에서는 한달에 4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여기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잔반 쓰레기부터 조리하고 남은 음식재료까지 포함된다지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우리학교는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협은 연간 1천 440만원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와 퇴비를 만드는 '하늘땅농장' 업체에 납품한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이재욱 과장은 "우선 음식물 쓰레기는 각 식당이 문닫기 전에 근처 처리장에 모아놓고 매일 업체트럭이 싣고 간다"며 "쓰레기 처리가 새벽에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협에서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반찬을 적게 배식하고 모자란 만큼의 반찬을 다시 배식하는 방법과 교직원 식당의 경우 밥의 양을 구분해 배식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효과적으로 줄어들이는 힘들 것이다.

다른 대학과 음식물 쓰레기를 비교해보면 연세대 생협직영식당은 하루에 1만 5천식, 세종대 생협직영식당은 5천식을 하루에 식수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0.8톤과 0.2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본교 생협직영식당은 1만식의 식수에서 1.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다른 학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대학에서 이를 줄이기 위

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자.

연세대는 한달에 한병정도 '잔반 없는 날'을 정해서 반찬을 남기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해 선물을 나눠준다.

세종대의 경우에도 연세대와 같은 '잔반 없는 날'이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반찬을 나눠주는 안내원이 배식을 지도하며 잔반의 양이 줄어들면 이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유기농 야채 샐러드 등의 후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세종대 한승희 영양사는 "현재 잔반을 유도하는 지도보다는 학생들에게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교육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잔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벤트 경향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박영신 영양사는 "반찬을 버리는 곳에 하루 단위로 지난날의 잔반을 그래프로 확인해 둔다"며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잔반의 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본교 식당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금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 학내구성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잔반의 양을 체크해 눈에 띄게 줄었을 경우 1주일에 한번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책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40여톤의 밥값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제안을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학생식당 음식 가격과 품질 어떻게 결정되나

상록원에서 배급되는 한식 가격은 대부분 2000원 안팎이고 양식은 2500~3000원선, 양식 코너에서 판매하는 일부 한식은 2500원이다. 이러한 음식 가격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상록원에서 정한 음식의 판매가 대비 단가 비율은 학생식당은 60%, 양식은 65%정도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1800원으로 판매되는 생선까스의 단가는 1,073원이다. 생선까스 한 개 당 727원의 차익을 합산해 인건비와 수도 광열비 등 기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협은 식당사업과 관련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흑자도 적자도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하지만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의 생협 사업유형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식당사업과 관련해 2001년 약 1억4천6백만원, 2003년 약 1억5천7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적자가 거의 2억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식당사업의 경우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높았다. 학생들에게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음식의 재료나 기타 물품을 구입한 금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즉 인상되기 전의 가격으로는 음식의 재료값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학생식당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음식점들도 있지만, 학생식당은 음식의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상품은 아니더라도 중·상 정도의 국산품 재료만을 구입하기 때문에 재료의 구입비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협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생협에서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은 시중가격과 비교했을 때 중·상 정도 상품의 가격으로서 적절한 선이었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상승도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편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음식의 질이 낮아진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생협 유계춘 계장은 "요즘 학생들의 식사 수준이 높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며, 가격을 다른 일반 음식점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7년, 2001년, 2004년 상록원 식당 작업표를 비교한 결과 오히려 재료를 통해 살펴본 음식의 질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협의 식당운영은 밥 값의 현실화 이후 적자 운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식대 인상에 따라 흑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음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용문 팀장은 "식당 운영을 알뜰하게 해서 흑자가 생긴다면 학생들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2004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김 영 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전임강사

오래 있고 있었던 캠퍼스의 풍경입니다. 문득 지난날 이곳에서 청춘의 한때를 보내던 기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교정과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젊음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 향기 속에서 이 순간 저 또한 한없이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 새로워짐을 에너지로 강단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란 진정한 배움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화연출 전공 △세종대 영어영문학 △동국대 연극영화학 석사 △(주)씨어터스 감독



황 순 일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87학번으로 인도철학과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영국으로 건너가 Oxford대학에서 최종 박사학위(D.Phil.)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시간들을 여러 후배님들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 정도까지의 복잡 난해한 인도 초기 및 부파불교의 여러 철학적 개념들을 알기 쉬운 현대어로 풀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기·부파불교 전공 △동국대 인도철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동양학부 박사 △충북대 전임연구원



허 남 결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전임강사

우선 주변의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임교원이 된다는 기쁨보다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자 본연의 의무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학과 내부적으로는 윤리문화학의 학문적 정초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이자 학과 선배이신 세 분 교수님들과 함께 학과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른이 다 되어 시작한 공부나 나뉠대로 한 매듭을 짓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씩씩이' 계속 정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윤리학 전공 △동국대 국민윤리학 석사, 박사



성 정 석
이과대학 생물학과 전임강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동국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 생명과학 분야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응용가치와 학문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려하나마 그동안 습득한 생명과학의 선진지식과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생명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면역학 전공 △동국대 농업생물학 △동국대 응용생물학 석사 △미국 Oregon주립대 Genetics 박사 △Harvard대 Research Fellow



양 우 철
이과대학 물리학과 전임강사

제 전공은 고체물리실험으로서 고체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표면 연구를 위한 광전자 현미경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한 반도체 표면의 구조와 전기적 특성의 측정과, 표면에서 물질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나노소자에 응용될 수 있는 나노구조(양자점, 양자선)의 실리콘 표면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물리학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에 대해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물리현상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체물리학(실험) 전공 △서울대 물리교육학 △서울대 물리학 석사 △미국 North Carolina주립대 물리학 박사 △North Carolina주립대 Post-Doc



최 창 렬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문사학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민법분야는 시민들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준칙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끌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구제방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하여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데 노력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법 전공 △성균관대 법학 석사, 박사 △성신여대 조교수



이 경 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전임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산골의 새학기가 시작되어 강의실로 향하는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바빠진 발걸음을 봅니다. 신입교수로서 저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연구에 대한 의무가 중만해짐을 느낍니다. 건물의 위치를 익히고, 강의준비를 하느라 요즘 정신없지만, '신인'이라는 이름표는 새로운 생활에 항상 즐겁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여 표현이 어째 이상합니다) 즐겁게 강의실이나 학교 이곳저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산업조직론 전공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Wisconsin-Madison대 Economics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승 웅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

유학과 해외에서의 강의로 7년여의 시간을 훌쩍 넘겨 버린 후, 다시 찾은 모교의 교정은 사뭇 모양새가 산뜻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교정 구석 구석 배어 있는 익숙한 느낌들은 여전히 반갑고, 그 느낌을 꾸준히 이어온 후배들이 고맙습니다. 이루어지는 어떤기만 할 것 같은 꿈의 시작은 정작 한순간의 작은 성실함이고, 그 완성은 단 한 효후의 인내라는 것을, 때로는 사제간으로 때로는 선후배간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조직 전공 △동국대 경영학 석사 △미국 Scranton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산업공학 박사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박 찬 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

한 세기를 지켜온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은 보이지 않은 많은 인연의 이글림 때문이라 생각하며, 새로 맺게 될 인연들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업보다는 친근함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고,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국대학교가 생산관리 및 경영과학 분야의 리더로 자리 매김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생산·계량 전공 △서울대 산업공학 석사, 박사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이 상 철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쌓아온 회계학과의 전통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헤쳐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동국대학교 회계학과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선생이 되겠습니다. 모나지 않은 좋은 동료가 되겠습니다. 학자로서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회계학 전공 △연세대 경영학 석사, 박사 △한림대 전임강사



조 준 형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전임강사

식물자원학과는 어느 자연과학분야와는 달리,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물론, 식·의약품 및 특수 기능성 물질 생산-산업화를 통해 인류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향상 추구하는 따뜻한 학문입니다. 보통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를 모교(母校)라고 합시다. 제가 있어서 동국대학교는 아버지(父)-어머니(母) 두 분 모두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꿈을 이루어 왔듯,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 학생들과 동국대학교 학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전공 △동국대 농학 석사, 박사 △작물과학원 Post-Doc



한 광 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제 전공은 건축학에서도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신행정 수도 이전, 청계천 복원 사업, 지구단위 계획, 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학캠퍼스 개발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서울의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남산의 녹지공원 공간과 인접해 대학 캠퍼스 기능뿐 아니라 서울도시의 시민의 휴식처로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멋진 캠퍼스는 결국 멋진 도시환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좋은 대학의 연구 교육환경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설계 전공 △연세대 건축공학 석사 △미국 Harvard대 도시설계 석사 △미국 Pennsylvania대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연세대 조교수



윤 선 태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임강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사학인 동국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대동아시아의 고문서와 목간자료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이후 고대도시, 도량형, 법률 등을 통해 고대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와 보편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지만, 이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아시아, 나아가 세계라는 공간 속에서 사유하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스승이 아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고대 동아시아관계사 전공 △서울대 국사학 석사, 박사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신 나 민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임강사

동국대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교육학 분야 가운데 평생교육, 교육공학, 원격교육을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했고, 미국원격교육연구소와 홍콩개방대학의 원격, 성인교육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과의 만남에 마음이 설렙니다.
△교육공학(Cyber contents 개발 및 운영) 전공 △서울대 교육학 석사 △미국 Pennsylvania주립대 Adult Education, Instructional System & Workforce Education 박사



조 상 식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임강사

자기수양 및 정진은 신앙과 학문 활동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면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교육학의 기초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서양교육철학 및 교육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미 전통의 교육학을 공부(학사)하고 독일에서 유럽대륙 전통의 교육학을 연구(석사, 박사)했기에, 앞으로 양 진영의 장점을 살려 통합적인 안목을 제공하는 데에 연구와 교수의 주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양교육학·철학 전공 △서울대 교육학 △독일 Göttingen대 교육학, 사회학 석사 △독일 Göttingen대 교육학 박사 △숙명여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초빙교수



강 춘 애
예술대학 연극학과 전임강사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쁨을 동국대학교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연극사와 동양연극에 대한 연구와 강의의 넓은 분야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연구와 현장작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연극이론 전공 △대만 중국문화대 국극 졸업 △대만 중국문화대 연극 석사 △중국 중앙희극학원 연극문학 박사 △동국대 겸임교수

◆ 경주캠퍼스 ◆



김 경 제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헌법 전공 △한국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석사, 박사 △독일 Bonn대 법학 박사



이 영 찬
상경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전임강사

△전자상거래 △서강대 경영학 석사, 박사 △서강대 대우교수



하 동 엽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외과(내분비, 유방외과)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대구 동부병원 외과장



송 인 옥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신경과(경련성질환) 전공 △순천향대 의학과 △동국대 경주병원 전문의



박 경 필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정신과(기질성장애, 기분장애) 전공 △경북대 의학 석사 △동국대 경주병원 전문의



권 순 백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피부과(피부과학) 전공 △경북대 의학 석사 △동국대 경주병원 전문의



조 재 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안과(각막·굴절)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동국대 경주병원 전문의

고수동정

△여인형(화학) = 세미나 참석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방문.
△류철(정보통신공학) = 학술회 참석을 위해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대만 방문.
△양현석(반도체과학) = 내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
△이승주(식품공학) = 회의 발표로 다음달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방문.
△최은만(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 IT해외연수 참석으로 다음달 18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방문.

본교 문예창작학과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가 올해로 42회를 맞이했다. 예선에는 시 315명, 소설 89명, 수필 170명의 전국고등학생이 응모했으며, 이 중 시 86명, 소설 40명, 수필 65명이 본선에 참가해 글솜씨를 뽐냈다. 올해는 준비된 여러 주제 중 추첨을 통해 주제결정을 했는데 시-수첩, 소설-거리, 수필-거리가 결정됐다. 본 지면에는 지난 6월 12일(토) 성황리에 끝난 제42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에서 수상한 작품을 일부 게재한다. 편집자



본선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단 기념촬영

심사평

시의 힘은 구체적인 체험의 재구성
독창적인 상상력과 표현력 돋보여

심사위원들이 큰 의의없이 장원으로 뽑은 이방울(충주여고)의 '수첩'은 우선 자신의 구체적인 체험을 짜임새 있고 깔끔하게 표현한 점이 돋보였다.

시에서의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펼쳐지게 마련이다. 그럴 때 작품은 읽는이에게 공감과 설득력을 두루 갖추게 된다. 곧 시의 힘이란 구체적인 체험의 재구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차상으로 상을 받게된 류한동(경북고)의 '수첩'은 노란 병아리를 매개로 한 비유의 참신함이 돋보이고 있다. 그만큼 상상이나 생각이 독창적이어서 잘 읽힌다. 표현에 있어서도 장황한 수사가 없는 간결함이 미덕으로 꼽아줄 만하다.

임준성(목포고)의 작품은 즐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잘 써 내려갔으나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위 입상에서 밀렸다. 이같은 흠결은 이번 백일장의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상당수의 작품들이 생활 주변의 간소한 삶을 많이 다루고 있어 일종의 상투형을 보이는 것이다.

조용미(보성여고)의 작품은 다른 작품들에 견주어 함축성이 많은 내용이나 오히려 그것이 작품의 선명한 인상을 해치고 있다. 흔히 말하듯 시의 위기론이 팽배하고 대중문화의 가공된 이미지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시적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대견스럽게 보았다.

신경림 (시인)
박제천 (문학과창작 발행인, 시인)
홍신선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

차상

경북고 3학년 류한동

학교 앞 구석진 모퉁이에서
한마리에 천원씩 주고
구입한 병아리 다섯마리.

엄마 볼래
내방에 숨겨 놓고
하루 하루 수첩에
병아리들의 모습을 담는다.

플래시를 비춘다.
병아리 다섯마리
라면 박스 귀퉁이에 모여 잔다.

한 덩어리 노란 빵이 되어
서로의 온기를 찾고들 있다.

붉게 얼은 병아리 다리가
노란 빵을 들고 있는 것 같다.
노란 빵을 뒤져 속에 있는
온기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어둠이 감싸 안은
한 덩어리 노란 빵 속에서
병아리들은 모여 잔다.

아주 먼 곳에서
악기 연주하는 소리 들린다.
태엽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수첩 안에는
병아리가 있다.
노란 빵이 있다.

차하

목포고 2학년 임준성

「천구백 팔십 일년, 유월 십일 날씨 : 흐리다 갸
첫 장을 넘기면 누렇게 바래버린 갸지위로
근 이십년을 묵혀둔 푸른글씨가
펼떡이며 튀어 오른다.

스무살 무렵,
푹푹한 내음을 풍겼을 엄마의 수첩은
어느덧, 스물 세 개의 용이를 만든채
결을 따라 날아왔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던 그 시절,
봉제공장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세 평짜리 옥탑방, 얽은뱅이 책상에 앉아
밤마다 수첩을 어루만지며
꿈을 꾸었을 엄마.

가난한 살림, 그 안에 발이 묶여
하얀계복, 간호사의 꿈을 접던 날
엄마는 수첩을 반으로 눌러 접은채
장롱 깊숙이 묻어 두셨다.

삼베자락처럼 까칠은 손,
자식들 걱정, 남편 뒷 바라지에
하얀 수첩의 기억을 더울릴 새도 없이
긴긴 해를 달려왔을 엄마.

반쪽짜리 인생
쓰다만 수첩 속에 잠든
엄마의 꿈.

햇살이 다시금 창문결에 부서지는
이천사년 유월십일,
장롱 깊숙이 묻어둔 먼지 쌓인 수첩을 꺼내어
조용히 가슴 속에 품어본다.

수상자

장원



충주여고 3학년 이방울

차상



경북고 3학년 류한동

차하



목포고 2학년 임준성

차하



보성여고 3학년 조용미

장원

충주여고 3학년 이방울

내 무언은 낡은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의
외로운 지평선. 영어단어와
무선영광의 영어단어와
아름다운 영어단어
모든 것들이 영어단어
가득 차 있는 영어단어
무엇이든 영어단어
의미는 영어단어
기쁨은 영어단어
무엇이든 영어단어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차하

보성여고 3학년 조용미

내 일상은 스프링같은 아버지의 다리에서 이루어졌다.
어제의 종이 넘겨지고
내 눈으로부터 오늘의 종이를 적어내릴 때
끈적하게 달라붙는 쇠맛 없던 시계소리.
아버지의 시침과 분침이
절룩거리며 내 눈을 가리면
나는 아버지를 수첩에 적었다.

19번째 수첩,
아버지와 아버지의 다리와 나의 일상과
그리고 나를.
넘기고 넘기면 어느새 시계처럼
수첩의 첫장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잊을 수 없이 흔들리는
아버지를 그렸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을 이 마지막 장,
수첩은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분침 사이사이로 아버지의 종이가 구겨져 나온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영광을 안겨주는 수첩 하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오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의의,
또 수첩은 채워질 때,
내 작은 몸뚱이
커다란 귀가 되어
산도의 마지막
산수의 맑음 소리
만들게 되었었다

장원

너와 나는 하나의 영혼이다

너는 내 과거를 지탱했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를 이끈다

나는 버스 안에서 다시 편지를 읽었다. 규하야, 어릴 때 많이 했던 보물찾기 기억나니? 나는 이 첫문장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다. 많이라는 말은 빠지는 게 나왔다. 우리가 언제 얼굴이나 많이 보던 사이였는가.

그러나, 그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편지대로 시골집에 내려가 보물찾기를 하려는 이유는 어머니의 재치 탓이었다. 이 편지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석 달이 지난 후에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어머니는 고고사학을 전공한 내가 언젠가는 사마르칸트 벽화 화보집을 볼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기에 유언으로 유품을 물려 주시는 책, 당신의 책에 편지를 끼워 둔 것이다. 어머니의 예상대로 나는 책을 읽고 결국 이 편지를 발견하였다.

이게 나와 나의 마지막 보물찾기다. 편지는 청유나 권유가 아닌 확신으로 그 문장을 채우고 있었다. 장소는 너와 내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다. 다음 문장은 쉬운 질문이었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오래 함께 지낸 곳은 다음이 아닌 시골집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문장이었다.

'태양의 분신들은 뿌리에 아픔을 숨기고 있다.' 날이 익은 문장이었다. 아마도 어머니의 소설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탄 버스는 어느새 목적지에 거의 다다라 있었다. 나는 내릴 준비를 했다. 의문은 집에 가면 풀리겠지. 나는 쉽게 생각하기로 했다.

예산 중점입니다. 버스 기사 목소리가 무릎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일년이 훨씬 넘어서야 다시 온 시골집은 광장히 낯설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집은 어머니의 친구분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 분 탓인 듯 마당 경관도 조금 바뀐 듯싶었다. 나는 마루에 내 집을 아무렇게나 던져 놓고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태양, 태양의 분신, 뿌리, 아픔...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그건 그때까지 여름을 맞이해 만개해 있는 해바라기 담장이었다. 나는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 래, 맞아. 해바라기라는 소설의 구절이었지. 무릎을 치며 당장에 다가서자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나무로 된 작은 표지였다. 웬지 모르게 신이 난 나는 그 표지 아래를 맨손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손톱에 흙이 끼게 흥장난을 친게 언제였던가. 나는 어렴풋이 예전 일을 기억해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살 때 나는 그녀가 씨를 심는 날을 가장 좋아했었다. 흙을 파고 씨앗을 심으면 씨이 나는게 신기해서였다. 새삼 웃음이 나왔다.

표지 아래를 반 뎀 정도 파자 비닐에 싸인 작은 종이상자가 나왔다.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다음 문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서 말이 없는데 사람 말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억한다. 두 번째는 쉬운 문제였다. 나는 흙투성이 손을 탁탁 털며 마당 안쪽, 집 건물 바로 옆으로 갔다. 오동나무로 적당히 그늘진 그곳에 바로 바위 가 있었다. 나는 또 또한 바위에 이름을 붙인 전력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어릴적 나는 바위를 투파라고 불렀다. 국적불명의 이름의 뜻은 기억나지 않았다. 투파.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바위를 때만쳤다. 동글동글한 돌은 예나 지금이나 갖기에 딱 좋았다. 그 위에 앉으니, 바위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며 흔들거렸다. 나는 급히 일어나 바위 아래를 보았다. 그곳에는 전에 없던 틈이 있었다. 손을 넣어보니 틈가 잡혔다.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질문이었다.

중요장 하나하나에도 그의 향기가 스며 있었다. 이런 잘 아는 대목이었다.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집으로 초대받아 그의 방 책장에서 책을 꺼내며 하는 말이었다. 책장, 어머니의 서재였구나. 나는 집안으로 뛰어갔다.

어린 나에게 서재란 경이로운 대상이었다. 내 키보다 높은 책장 가득 책이 있는 그 풍경이란. 그러나 지금의 나는 책장보다 작지도 기가 죽지도 않았다. 단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의 다음 편지를 찾을 뿐이었다. 나는 먼지가 쌓여있는 책장에서 그 구절을 쓰여진 책을 찾았다. '집을 떠나

다'라는 제목의 소설집이었다. 벌써 귀퉁이가 낡아 닳은 소설을 휘리릭 넘기니, 역시 예상대로 편지가 있었다. 나는 급게 접힌 편지를 뜯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렇게 꼭꼭 숨긴 보물이 뭐니까, 어머니? 편지에는 수고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말과 함께 파란색 잉크로 문제가 적혀 있었다.

'사람이란 뒤를 돌아봐야 한다. 손바닥 뒤집듯 삶을 뒤집으면 붉은 태양 아래 푸른 슬픔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슬픔의 이면에 광휘가 들어있기도 있다.'

우선 글이 길었고, 어디에도 장소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은 없어 보였다. 게다가 어디에서도 읽어보지 못한 글이었다. 이것은 암호라기보다는 늘 하시곤 했던 설교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당황하며 다시 전문을 읽었다. 그러나 답이 나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면을 보렴. 그 말씀은 아주 낮은 것으로, 늘 하던 설교였다.

서서히 편지의 글은 선명한 기억 속의 울림으로 변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입 안으로 계속 이런 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듯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눈 앞이 선명해지며 무언가 깨달았다. 그리고는 급히 책장 옆면으로 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식 옷장을 치웠다. 그러자 놀랍게도 꽤 넓은 벽과 책장 사이의 공간이 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가득한 박스였다. 나는 박스를 대어젖게 열어냈다. 그것들을 열자 낡은 노트들이 쏟아져 나왔다. 40여년간 어머니가 써오신 일기였다. 나는 놀라며 박스들을 다 꺼냈다. 그러자 그중 특이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냥 라면박스나 사과 박스인 다른 것들과는 달리 그것은 잘 포장된 작은 크기의 상자였다. 마치 선물같은 그 상자를, 나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놀랍게도 편지였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작년 3월에 쓰여진 것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이었지만 가장 아래의 편지는 어머니가 고등학교때 쓴 편지였다. 태어나지도 않은 나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20년 전, 어머니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셨다. 규하야. 너와 나 사이에는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없다. 어떤 거리도 관계 없다. 너는 내 과거를 지탱했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를 이끈다. 나는 낮이 빠져 편지들을 읽어내었다.

규하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우리가 함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나는 너 그 체이다. 분신이란 말조차도 뛰어넘는다. 규하야. 사랑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모자라기에 아예 하지 못했다. 규하야.....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 어느새 나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직전 쓰신 것이었다.

규하야. 내가 너의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불쑥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너도 알지 않니. 너와 나는 하나의 영혼이다. 오늘 너와 함께한 추억이 깃든 곳에 문제들을 숨겼다. 일기장을 보니 그때 일들이 생생하다. 너로 인해 태어난 내 모든 글들과 내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 다시 부탁한다. 날 발견하면 웃어주렴. 사랑하는 내 아이.

나는 잠시 그 편지를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바위가 보였다. 어머니와 함께 포도를 먹던 자리다. 해바라기가 보였다. 어머니와 함께 씨앗을 심었던. 그리고 물이 마른 물레방아, 마당의 오동나무, 참나무.....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보였다. 어디에서든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 곁에서 웃는 모습도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다가갔다. 그곳에도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너무나도 나와 닮은 모습으로.

나도 웃었다. 그렇군요. 어머니. 정말 당신은 나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군요.

나는 보물을 찾았다.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붉은 보석 하나를.

해성여고 3학년 김정아

수상자

장원



해성여고 3학년 김정아

차상



울산여고 3학년 김지영

차하



성일정보고 3학년 나혜민

차하



인양예술고 3학년 김보람

심사평

사건과 인물의 성격창조 미흡 장원 작, 구성기법과 전개능력 우수

모두 46편의 작품을 읽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리'의 의미를 가족 사이의 거리이거나 정상인과 장애인 사이의 그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짧은 시간에 소설 한 편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사건과 인물의 성격 창조가 미흡한 점이 특히 눈에 거슬렀다.

장원으로 뽑은 '거리' (해성여고 김정아는 추리소설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 솜씨와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만만치 않다. 돌아간 어머니가 남겨 놓은 편지 구절의 뜻을 해석하며 점차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매우 밀도있게 그려져 장원으로 뽑는데 이점이 없었다. 나머지 수상작들도 사건을 조작하고 마무리 짓는 솜씨가 제법이었으나 다소 도식적인 결말과 부정확한 어휘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김원일(소설가)
한용환(본교 국어교육과 교수, 소설가)
장영우(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남기고 싶은 한마디

△주제도 너무 난해해서 순간 당황. 오래된 역사 만큼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어제 1시(새벽)차 타고 와서 힘들어요. 내 내년 일요일날 하세요.
△국어교육06 들어올게요.
△화부모에 대한 배려가 없네요. 멀리서 아침도 못먹고 따라왔는데.. 입이 볼 책이라도 한권 주셨으면 벤치에서 졸지 않고 읽었을텐데 아쉽네요.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좋은 경험이었구요. 꼭 오고싶습니다! 동대 문창과!! 문예부도 아니었던 일반학생으로서.. 대선망고 파이팅!!
△안내하시느 언니,오빠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았어요. 편안하게 시험(?)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불행으로 다 못 옮겨 적었네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멀리에서 왔는데..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시제가.. 그래도 모두들 친절하고!! 좋았어요^^
△시제가 애매하긴 했어도 다 웃어주시고 밝은 모습보니까 편히 기분이 좋더군요. 멀리서 새벽차 타고와서 힘들었는데.. 힘든만큼 보람이 있었던 듯.. 문에 창작학과 fighting!! 동국대 fighting!!!
△작년 새얼도(아마)수첩'이었고, 작년 중앙대도 '수첩'이었는데...^^ 작년에 쓴거 쓸 수 없어서 새로 쓰려는데 막 걸려 떠올라서 기억 지우느라 힘들었어요.. 시제 흔치 않은결로 좀 주세요...!!
△Everybody, nice to meet you!!
△담임선생님이 상 못타오면 결석처

리 한다고 하셨는데..개근상은 물 건너 갔구나.. ^^
△학생들에게 밝게하는거, 긍정성 있어 보이긴 하지만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뽀아 주세요!!
△시제 여러개 주세요.. 2개라도..
△선생님선생님 사랑해요.. 내년엔 봐요..
△거리라..시간너무 부족했어요 '동대 문학콩쿠르 40회때 참가했었는데 올 해 아쉬움이 많이남네요 -상명고3 윤기원-
△내년에도 또 올게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06학년.. 다시!! 꼭 올게요 -목포에서 왔음- 힘들어요..
△잊지못할 시제..^^
△저 동국대 꼭 옮겨주세요. 다른과로 해서라도 되도록 문예 창작학과 와야죠. fighting 동국대!!
△문예반도 아닌데.. 혼자 와가꼬.. 잘 못친겨같아서..슬퍼요..동국대 꼭 와 보고 싶어서.. 내년엔 꼭 더 잘칠려구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동국대 문창과에 꼭! 오고싶어요. 내년엔 봐요~ 무학여고 정솔문예반 휘팅!!
△저는 내년이 없네요. 살아가는데 연습으로 삼겠습니다. 종이 넘 많이 써서 죄송해요!!
△처음으로 전국대회 나온 거였는데... 주제가 너무 난해했음. 뽑은사람... ^^ 아무튼 좋은 경험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좋은추억만 들고 갑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끼리 모이니 좋네요~
△년생 처음이었지만 고3 좋은추억 만들어 좋습니다. 고3휘팅!!

차상

나는 두 개의 몽그러진 발이 아득하게 떨어진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가 죽어버려! 이 짐승 같은 새끼! 이 짐승 같은 새끼!"

막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집 전체를 울리는 노여움에 찬 호통에 나도 모르게 어깨를 떨었다.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에 뒤엎긴 아버지의 노한 음성이 사정없이 욕설을 뱉어내고 있었다. 이내 무언가 둔중한 것이 딱딱 걸터차이는 소리가 뒤따랐고, 나는 침담하게 밀려오는 불안한 예감에 입술을 깨물며 소리가 나고 있는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부엌에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버지의 발이 부서진 식탁 아래에 웅크린 오빠를 사정없이 거둬내고 있었다. 정수리 한가운데가 목직해진다.

"아버지!"

내 떨리는 외침에 고개를 돌린 아버지는, 나를 보시더니 이내 거칠어진 숨소리를 쉼없이 밖으로 나가셨다. 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슴 한 칸이 무거워진다. 나는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오빠를 내려다보았다. 한쪽 다리가 완전히 무너진 식탁 아래에 웅크린 오빠는 동글게 몸을 만 채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 나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바닥에 앉아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빠가 깔고 있는 것은 방금 전, 식탁에서 잘라낸 듯한 목재 식탁다리였다. 부서진 식탁의 주변에는 내가 아침에 차려 놓고 갔던 아버지의 점심 진지와 수저가 나뭇그려져 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또 왜 그랬어? 오빠."

아버지에게 맞아 벌겋게 달아오른 목덜미에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다. 오빠는 아무 말이 없다.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식탁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떡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지....."

듣고 있기는 한 건지 오빠는 어떤 흔들림 없이 기계처럼 조각칼을 움직이고 있다. 나는 코끝을 문지르며 오빠를 식탁 아래에서 끌어내고, 식탁 주변의 깨진 그릇들을 치웠다. 그 와중에도 오빠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조각칼로 식탁다리를 깎는다. 나는 눈 사이가 따가운 것을 느끼며 눈을 내렸다.

미소를 잔뜩 머금고는 말했다.

"네 오빠가 깎은 거란다. 어느 날부터 계속 책상 다리를 칼로 깎길래 빨래비누와 조각칼을 쥐어줬더니 이런 걸 만들어 내지 뭐니."

엄마의 말에, 구석에 웅크린 오빠의 손을 힐끔 바라보았을 때, 오빠는 정말로 조각칼을 쥔 채 또 다른 빨래비누를 꺼내내고 있었다. 자폐아들이 흔히 보이는 고도의 집중력은 오빠에게 조각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 이후로 오빠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나무조각이 나비누 따위를 깎아 사람의 손이나 얼굴, 탑 따위를 만들어내었다. 오빠가 만든 조각품을 보며 희망에 겨워 웃음지던 엄마의 얼굴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했다.

스레기 봉지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서던 나는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한 것에 위화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오빠의 방문을 열었다. 벽을 보고 앉은 오빠에게서 서걱서걱하는 나무 깎는 소리가 났다. 나는 쓰게 웃으며 오빠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뭘 깎는 거야?"

내 목소리에 나를 한번 힐끔 바라본 오빠는 이내 다시 작업에 열중했다. 나는 오빠의 가는다란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발이었다. 부자연스럽게 발가락이 휘어진 모양의 발을 깎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익숙한 모양새에 잠시 할말을 잃고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나무조각을 깎는다.

엄마의 불나의 헛살과도 같던 미소와 부분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계속되는 고된 집안일과 오빠의 뒤따라거리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엄마가 어느 날,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이후 몇 번의 수술과 각종 시술을 받았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져있던 엄마의 몸은 그만 그 온기를 다하고 말았다.

엄마의 숨이 끊어졌던 날, 엄마의 싸늘한 시신을 부여잡고 피맛한 눈으로 오빠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던 아버지의 절규와 오열을 나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날, 술에 취할 대로 취해 집을 나가셨던 아버지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강둑으로 떨어지셨다가, 마을 사람에게 겨우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오셨다.

발등과 발가락이 완전히 몽그러져 버린 그 날밤 이후, 아버지는 단 한번도 오빠를 가까이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낯선 타인보다도 더 먼 거리에 오빠를 밀어 내놓고 마셨다.

아버지는 내가 내민 오빠의 조각을 바라보며 아무말도 없으셨다. 나는 아버지의 일그러진 발가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가 깎은 거예요. 아버지."

눈물이 쉽게 빠인 아버지의 눈동자가 건조하게 나무조각을 바라본다. 나는 명치끝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끼며 두 손을 부여잡았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나는 어떤 것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나가 봐라."

너무나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아버지의 새된 음성을 들으며, 나는 미간이 저릿해오게 되고 그 순간, 나는 두 개의 몽그러진 발이 아득하게 떨어진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울산여고 3학년 김지영

장원

실질적인 거리는 짧으나 정신적인 거리는 이미 남극과 북극의 거리다

저어도 지금 이곳은 악명 높은 곳이다. 헛소문 들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기본 자체가 노는 것이다. 악명 높다는 이곳의 기본. 좌우 양 사이드. 상하 프론트 비하인드. 바로 그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 때문에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인가. 필시 없었고 상하좌우의 원인들이 도맡아 있는 것. 이게 원인이다. 악명 높다는 기본이 내 뒷골을 쿡쿡 찌르는 그 원인.

1. 강당의 죄 강당이라 하면 일단 넓다는 기본이 든다. 무언가 확 트여있고 그래서 마려운 무대가 거대하다는 기본이 든다. 반면 무대보다 커야 할 객석은 사실 내가 그 많은 객석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그대로 막힌을 당해야 하는 협소한 공간에 결국 객석은 무대보다 작은 것이 되고 객석에 앉은 나는 무대에 압도가 된다. 무대는 객석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에 그 거리는 내가 앉아있는 이 객석을 잔뜩 겁먹게 한다. 함부로 손이 닿지 않을 듯한 먼 거리감. 사방의 벽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한 천장과 조화 를 이루어 나를 겁먹게 한다. 벽은 스스로 나와의 거리를 띄워놓고 감히 천장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 그에 결국 나는 움츠러들어서 잔뜩 부동 자세 를 취하게 된다. 오나가나 이 거리는 새파란 눈을 뜨고 겁을 못 취 안답이다. 손을 아무리 길게 뻗 어 휘저어도 닿지 못할 이 거리감. 이 귀신을 만든 게 강당이고 나는 강당 속에 앉아 있다. 뒷골 찌르는 게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2. 상하좌우 원인들의 죄 이 원인이라는 말을 난 근원 할 때 '원' 자에 인 간 할 때 '인' 자로 고쳐 부르지 않으면 좀이 쑤서 못 견딜 것 같다. 이 원인이란 자는 악명 높은 강 당 속의 사람들이다. 필시 이들은 내 포래임에 분 명하다. 머리가 단발인 것으로 보아 예쁜 여학생 이며 짧은 스포츠 머리로 보아 잘생긴 남학생인 듯하다. 이들이 각각 두 명이고 종합 네 명이다. 네 명들은 상하좌우 객석에 앉아서 날 둘러싸는 다. 원래부터 내게 원한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구면은 절대 아닌데-악수이나 한 듯 자리에 앉 는다. 날 둘러싸 작작한 이 네 명들은 무대의 한 양복 남자의 신호에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무언 가를 쓰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내 뒷골은 쑤시 다 못해 아프게 됐다. 네 명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무 언가를-무슨 리스트 같았다-명렬히 작성해나 갔는데 좀 엇볼라치면 도무지 그 위압감이 못 이 겨 실패하고 만다. 그런데 순간 그 네 명이 하는 어떤 작업을 나도 해야 한다는 어떤 각성의 제안 이 나의 뇌리를 스쳤을 때 비로소 나도 무언가를 끄적이게 된다.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다. 그들은 이미 쓰던 메모를 뺏겨버려 채운 지 오래다. 네 명중의 한 명을 힐끗 보니 눈이 시퍼렇다. 다시 네명은 일제히 제시된 공식 양식에 메모를 옮겨 적는다. 그리고 난 거기서 잘 모를 거리감을 느꼈 다. 그 네 명은 나 보란듯이 써내려가면서서도 사실

은 위압적인 거리력(力)을 내뿜는다. 날 하룻강아 지 취급하듯 그들은 먼 거리에서 날 떠본다. 사실 상하좌우의 객석이 내가 앉은 자리와는 겨우 두 뼘 남짓 할 뿐인데도 도무지 나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다. 실질적인 거리는 짧으나 정신적인 거리는 이미 남극과 북극의 거리다. 문제는 내가 자꾸 위축하는 데에 있다. 그들이 멀어서이다. 한 발자 국만 떼면 되는데 일단 떼면 또 다른 지면에 닿을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이다. 그들과 달기엔 너무 나 먼 짧은 거리. 또다시 난 부동의 자세를 취하 게 된다. 좋아서가 아니다. 강당에 놀리다 못해 이젠 사람들에게도 놀리기 때문이다. 다 거리 때 문이다. 나의 거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짧음을 강당과 주변의 냇은 더 짧게 했고 자기 와의 거리는 더 넓었으며 그래서 날 더 작게 만들 었다. 뒷골이 더욱 쑤신다. 아프다 아파.

3.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당에게 죄를 추궁하다간 졸지에 내가 바보 취급당해 망신당할 수 있으며 나의 주위에 착석 한 네 명에게 죄를 추궁하다간 무고죄로 손해배 상액만 더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비록 난 원고로, 그들은 피고지만 좀체 그 분이 모호해지다 못 해 구별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냐? 이럴 땐 악명 높은 각각의 강당과 네명의 공 동분모를 찾아 추궁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 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거리를 선택했다/ 거리를 출두시켰다./ 거리를 추궁했다./ 거리를 판별하게 했다./ 거리가 꽤소했 다./ 내가 쑤소했다.'

다행이다. 결국 난 원고로서 마땅한 판결을 듣 게 되었다. 내가 거리를 지목했던 것은 무엇보다 강당과 네 명의 공통분모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 문이다. 저 거리라는 것 때문에 나를 잔뜩 움츠리 게 하고 뒷골을 때린 것이다. 애초 강당에서의 무대와 객석 간 거리를 좁히 고 객석간에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차와 다가가 준 비 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런데 이 거리가 큰 문제가 되어 결국 피고가 되고 만 것이다.

4. 에필로그 비록 꽤소한 거리였을지라도 바로 지금 날 엄 습했던 네 명이 급하게 나가고 강당은 소등을 하 지 다시 부활했음을 느낀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 었다. 그러나 '악명 높은'이라든지 '뒷골'이라든 지의 기본상의 자극은 없어졌다. 즉, 거리가 부활 했다고 해도 '거리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젠 됐다. 이젠 의기 조짐했던 내가 나설 때이다. 거 리감은 말끔히 사그라졌으니 거리를 포획하면 된다. 거리만 잡아서 아예 소명시키면 이젠 나도 혐소했던 이 자리를 떠 당당하게 강당문을 박차 고 나갈 수 있을 듯하다. 네겐 더 이상의 거리감 은 없다. 거리는 없다! 서해고 3학년 최성욱

수상자

장원



서해고 3학년 최성욱

차상



한서고 3학년 김다운

차하



양천여고 1학년 이선민

차하



대전외고 3학년 성유나

심사평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소재 다뤄 발상의 참신함과 솔직함에 공감

흔한 소재를 천편일률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았다. 물론 글 제목이 다소 그런 작문경향을 부추기기도 했겠지만, 역시 제목이 주는 하중에서 자유롭게 글거리를 만들고 열개를 찌는 능력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

최성욱(서해고)의 '거리'는 백일장이 열리고 있는 현장을 소재로 삼았다. 그 발상의 참신함에, 그리고 자신과 주변을 잘 관찰하여 솔 직하게 글을 엮어나간 점에 심사위원들은 공감했다. 단지 문장이 다 소 불안한 곳이 있고, 한자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하게 알아들 필요 가 있겠다고 판단한다.

김다운(한서고)의 '사랑과 반역 사이의 거리' 역시 소재의 참신성, 경험의 폭넓음, 글과 사물을 대하는 진정성 등이 미덕이었다. 문장도 안정되었다. 단지 필자의 사고가 반전되는 계기에서는 설득력이 모 자라 보였다. 장원 작보다 김다운의 단점이 더 커보인다는 점, 그리고 현재적 성과보다 미래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최성욱을 장원으로 뽑는 데 심사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선민(양천여고)의 '거리'는 차분하고 설득력있는 작품이지만 지 나치게 동화적 소품의 성격이었고, 성유나(대전외고)의 '거리기발이 되어' 역시 차분한 작품으로 결말도 설득력있지만 수필적 성격과 다 소 거리가 있고 내용에 비해 좀 긴 분량도 감점요인이었다. 두 작품 을 차하로 뽑기로 했다.

이밖에 이수경(은광여고), 권소희(서문여고), 권미진(대구경명여 고), 서주희(명성여고), 김은희(홍대부여고)의 작품을 눈여겨 보았다.

고재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본사 주간) 이종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한만수 (문과대학 국어문과과 교수)

차상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고작 손만 뻗으면 맞잡을 수 있는 선이었다

1. 세기말의 일이다. 나는 존경하다 못해 미치도록 사랑하는 작가, 노회경의 TV 드라마 '슬픈 유혹'에 빠져있었다. 우리는 사랑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반역이라 했다 며, 불편한 심기를 따뜻하게 다그치는 작 가. 이번에도 내 심장을 뺏먹을 참인가? 늙도 젊도 않은 나이 마흔, 번지르르한 이마에 세월을 담은 주름살이 못내 안쓰 러운 김갑수. 그리고 아직도 성장할 한창 나이, 그 스무고개 언저리의 청년 주진 모-그는 젊다 못해 어려 보였다. 설마, 저 두 사람, 설마..... 사람과 사람, 그들이 사랑을 한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 키스를 한다. '육정'이라 외칠 내 입 을 미러부터 막아버리며, 아주 진하게 아 주 절박하게. 그 때, 내 나이 열다섯. 노회경, 그녀는 늘 그런 식으로 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날 마구 학대했다. 스스로 마조히스트를 자처하기엔 너무도 어린 나이의 소년은 그렇게 그녀와 적당선을 모르고 멀어져 갔 다.

2. 열여덟 살이 되던 해. 나는 영화를 찍겠 다며 부모의 원성에도 아랑곳 않고 '하자 센터'란 곳을 다녔다. 영등포 시장, 후미 진 골목길에 위치한 그곳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있다. 나는 '하자'를 울타리라 여기며 매일같이 그곳에서 과잉보호를 받 았다. 어찌하는 위로로, 대부분은 존재만 으로. 소위 '왕따'라 일컫는 탈학교 청소년 이 주를 이루는 그곳에 '교복'을 입고 드나드는 '이방인'으로서 내가 받은 건 과분한 것이었다. 그렇게 '울타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 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그곳을 '출가 미'라 여겼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과 대화하던 나는 그저 알던 여자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나 가진 거 전부를 포기할 테니 사랑을 하 고 싶다고, 축복 받지 못할 연애를 하고 싶다고, 나와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고. 고 백이라고 한 건가? 커밍아웃. 뻔뻔스럽게 도 그녀는 내게 위로 받고 싶다고도 했다. 그런데 나는? 못 볼 것을 본 양,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던 작 가도 아니었음. 김갑수의 멋드러진 주 름은커녕, 주진모보다 어렸다. 그저 알던 여자에게 달콤한 위로는 위선이라 생각했 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목이 매이고 다 리가 휘청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갑 자기 나를 미치도록 때리던 그녀, 노회경

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또 뭐가? 지독하게 고(苦)로와지던 청춘의 계절이었다.

3.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녀, 노회경을 만났다. 마흔 살의 미혼모 와 스무 살 소년과의 힘든 사랑으로 살아 는 그녀의 모습은 나를 또 한번 흥분시 켰다.

"철민씨(동호회에 내가 쓰는 ID이다), 키가 많이 큰 거 같네" 하고 소박하게 웃 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저 미소 만 지을 뿐이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모임에서 그녀와 따로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그렇게 건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후자가 질문 을 던졌다, 그녀에게. '죄가 되는 사랑이 있느냐?' 나는 따로 놀던 머리와 심장을 그녀에게 집중시켰다. 그리고 속으로 '바 라건대, 바라건대, 바라건대는.....' 그런 데 그녀의 대답은 내 기대를 산산이 무너 뜨렸다.

"없, 다" 짧고 명료한 성격의 그녀, 어울리지 않 게 부연 설명을 한다. "죄가 되는 사랑이란 없다. 이 세상 누 구도 나와 다른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죄 값을 치러야 할 이유는 없다."

내게 고백했던 그녀, 내게 위로를 구하 던 그녀, 그녀가 보고 싶었다. 나는 왜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 을까? 나는 '다르다'와 '틀리다'도 구분 못 하는 우매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렇게 스 스스로를 자학하며 있던 중, 그녀가 밝게 웃 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항상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은 상대방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누군 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녀는 내 이런 싸구려 사과마저 맞았게 받아들이며 밝게 웃었다. 순간 나는 이성 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어쩌랴. 그녀는 나와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고작 손만 뻗 으면 맞잡을 수 있는 선이었던 것이다. 나 는 이제 그 어떠한 사람, 누구와라도 부대 길 수 있다. 지독한 '오춘기'도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아주 지독했던 그것이 끝이 난 것이다. 한서고 3학년 김 다운

www.dongguk.edu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100년의 아침 그리고 스무살의 아침- 동국대학교



"공부하는 대학, 동국대학교... 업그레이드는 계속됩니다."

- ◆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획단 설치
◆ 1학년 단과대 수석 미국 학술평화연수생 파견(20명)
◆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어학연수·학술 문화연수생 파견(100여명)
◆ 해외 우수 IT교육기관 연수생 파견(50명)
◆ 2004년도 교원 임용고사 서울지역 대학 최고 합격률
◆ 정보통신부 IT / B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선정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선정
◆ 국내 최초의 공학교육인증 대학
◆ 최첨단 시설의 경주캠퍼스 제2기숙사 9월 완공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일정

[원서접수]
■수시2학기: (서울) 2004.9.1(수)~9.14(화) (경주) 2004.9.1(수)~9.14(화)
■정 시: (서울) 2004.12.22(수)~12.27(월) (경주) 2004.12.22(수)~12.27(월)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www.dongguk.edu / www.uway.com)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 의]
(서울캠퍼스 학생선발실) 02)2260-3031~4 / www.dongguk.edu
(경주캠퍼스 학생선발실) 054)770-2031~4 / wwwk.dongguk.ac.kr



인기 영어강사 이근철씨 인터뷰



“영어를 놀이같이 접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됐죠”

매일 토익이다, 토플이다 영어 사전...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절반을 영어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골치 쫓는 영어를 그야말로 '신나는 놀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때 우연히 팝송을 들으며 조금씩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각종 회화 테이프 듣기를 즐겨 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에 있는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편팔을 주고받기도 했다.

했다. 또한 길을 가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아무런 스펠 없이 교과서에 나온 영어대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보기도 했다.

-대학 생활은 어떠했는지. =누구나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대학 시절에 영어 공부에만 매달렸겠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문학과를 선택했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심에 어휘 3만3천개를 한 주에 익히려고도 했다.

그 중 선배들과 무역 관련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작은 노점상에서 수박을 팔기도 했다.

들을 알게 되었고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고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비결은...

=어려서부터 미국의 라디오 방송이나 길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들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다보니 굳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어도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요즘 대학생들은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필수코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영어가 훨씬 친근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영어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영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단계를 추천한다.

첫째, 심리적 강박관념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대개 자신이 외국에 있는 원어민이나 동시 통역사 만큼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있다. 둘째, 조그만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은 전화통화하고 관련된 표현부터 익히자' 하는 식의 작은 계획부터 세워보는 것이다.

셋째, 앞서 말한 계획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배제된 언어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국 사회의 현재 문화와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

=EBS와 KBS 영어 강의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영어 강의를 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아우러진 영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이를 일본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설명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이상영 교수의 해외 체험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독일대학



필자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부독일에 있는 Kiel대학에서 1년간 연구자 체류 중에 있다. 이 대학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의 법률, 사회제도, 언어와 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학제간 교류와 연구를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독일이 주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사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소수의 참석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독일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문가는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 비해 많지 않다. 물론 일반인의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적다. 자연 청중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의 또 다른 특징은 강연회 장소를 대학강당만이 아니라, 키일시의 행정 관서나 학술단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밀접한 접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인들이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독일의 여느 대학과 달리 키일대학은 한군데 모여 캠퍼스 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참석자들이 대학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덜고 아카데미



필자가 머물고 있는 동유럽법연구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지난 학기 이 연구소에서는 독일의 동유럽학회와 주정부 및 장학단체의 후원을 받아 매주 월요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같은 학기 중에 1회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강연회가, 이 연구소에서는 이미 학기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다 음 학기의 강연회 프로그램을 미리 확정하여 공고해 놓고 있었다.

필자는 강연회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참석자가 10여명밖에 되지 않는데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교 이외에는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 부분을 희석시키면서 학문의 실용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독일인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어떤 강연회든 정말 관심있는 사람만이 참석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최대한 전달하면서 평가받으려 하고, 일반참석자들도 단순한 들러리가 아닌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고 연사와 함께 토론하고 호응하면서 연사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강연회를 통해 독일에서는 전문가나 교수들의 권위가 어떤 직책에 의해 인정되기도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책무 및 도덕적 양식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영 법학과 교수

동국대출판부

미리 겁내기 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 택해야



정기홍 서울신문 편집부 차장 국문학과 88졸

요즘 대학을 갓 졸업한 신춘내기 친구와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뻥한 주제를 갖고도 달리 내뱉는 그 친구의 토씨 하나 하나에서 '젊은 세상'을 보는 흥미인 듯 싶다.

나는 주말마다 모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하지만 이 게 걱정을 앞세우는 단초가 된다. 일산 불교병원 개원 어땠다, 로펌 준비 불만과 논란, 중앙대 필동 병원 인수하니 마니 등... 주의 주장들을 관심 있게 읽었다.

요즘 언론사는 적성 중시로 넘어가는 경향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적성검사와 그로토포를 거친다. 적성이 맞으면 도전하란 뜻이다.

히 편집기자가 그렇다. '폼'도 팔아야 한다. 시련은 정보 싸움이다. 예컨대 그냥 편집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동문을 통해 면접관의 성품과 관심사 등을 분석해야 이긴다.

나는 몇년전 동문 몇명과 총장님을 뵈고 언론 고시반 운영을 제안했었다. 이런 이유로 고시반 후배들의 얼굴 면면이 궁금해진다.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김태준 편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인 상은 주로 프롤레타리아 계열 등 제한된 작가들에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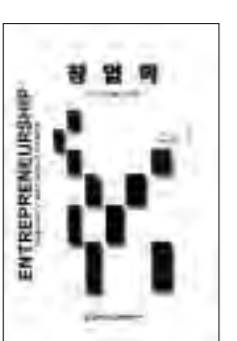
2 금궐요략석강 최달영·김준기·염용복 공저 이 책의 내용은 우선 원문(原文)을 단락별로 교감(校勘), 사해(詞解), 해석(解釋), 제요(提要), 강해(講解), 언어(按語) 등의 차례로 정리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작품 중심의 독일문학사 만프레트 마이 지을 독일학과 교수 임호일 옮김 이 책은 독일문학사 최초로 '작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4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 한국문학연구소 신서 제 10권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화와 문예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엮은 것이다.



5 창업학 산업공학과 교수 박춘업 전문 서적의 출간으로 창업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보급되었다.



6 계몽의 기획 근대정치사상연구 계몽의 기획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대연 이 책은 17~18세기에 태동하여 19~20세기에 새로운 세계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몽주의 또는 계몽기획에 관한 연구논문들이다.



7 원예·조경식물의 혁명 조경학과 교수 최상범 조경식물학을 공부하지만 배농을 수 없는 것이 식물의 혁명이다.



8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한국문학연구소 신서 제 11권 한국문학연구소 편 이 책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동아시아 담론을 둘러싼 비교문학 연구의 소중한 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보리소

산은 우러러보고, 길은 걸어 다니다

희양이 마조에게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여 무엇 하려고 하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희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다 같이 시작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소수례에 멩을 채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올겠는가, 소를 때려야 올겠는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마 부처란 좋은 것이며, 하지만 현재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일 것이다. 그 뭔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그 뭔가를 바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을 욕망할 수 있는 동물이다.

욕망하는 것은 '나'이다. 그 뭔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나'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우고 유지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길(道) 찾기'가 내 몫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길을 찾는 것이지, 길이 사람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왜 스스로 길 찾기 하지 않고, 길이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거꾸로 매달린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의 도량이 작고 인내성이 없어 조그만 일이 있으면 곧바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 만족하므로 두루 살피고 넓게 고찰하고, 반복해서 정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걸어 다니다"고 했다. 욕망하는 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느껴 스스로 길 찾기에 나서는 게 아니면 수레를 치든 소를 때리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이겠는가?

유 훈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바비인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바비인형은 마텔이라는 미국의 장난감회사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인형이다. 바비인형은 1959년 장난감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인 후에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전지구적 상품이기도 하다. 게다가 바비인형의 인기는 단순한 장난감의 수준을 넘어서, 성인들의 수집 대상 품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바비인형과 같은 몸매를 가꾸자는 다이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십대들의 미적 표준 되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바비인형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의 차원을 초월해서 일종의 미적 표준체제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비인형을 처음 개발했던 마텔사의 창업주 루스 핸들러는 십대 취향에 맞는 장난감으로 바비인형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말은 한창 감수성을 형성할 시기의 십대들에게 바비인형은 중요한 미적 표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이런 십대들은 자기 자신의 구매력에 의존하기보다 부모의 선택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게 마련이다.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십대들을 주 소비층으로 내세웠던



논단

이택광
문화평론가

선택된 장난감 '바비'의 규율

바비인형이 처음 출시당시 판매상들의 호기심을 끌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마텔사는 당시에 본다면 획기적으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이런 잠재적 소비층을 표면으로 불러내는 데 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바비인형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십대의 소비자 현상과 매스미디어로 인한 사회변동에 적절하게 조응해갔던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문화 현상의 중심으로

그러나 바비인형을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문화적 현상은 이런 사회경제적 범주보다 더 깊숙한 속내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바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비인형이 모방하고 있는 현실적 표준모델이 결국 "섹시한 백인 여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 말이다.

물론 바비인형은 59년 탄생 이후에 60년대의 개방적 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관계로, 다분히 탈근대적 키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60년대의 분위기가 이런 바비인형의 의상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의류 패션으로 전용되기까지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비인형은 일개의

심대음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실적 문화현상에서 중심 축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매개이기도 하다.

바비인형의 성공비밀은 이런 독특한 문화적 효과에서 연유하거나,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비인형 자체가 십대들의 호기심보라도 당시 십대들의 구매력에 경제적 근거를 제공했던 성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기에 오늘날의 바비인형의 성공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바비인형은 어른의 눈을 통해서 선택된 십대들을 위한 장난감인 것이다.

강요되는 백인중심의 미인관

그러므로 바비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라기보다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일종의 규율 같은 것이다.

흑인과 히스패닉을 위한 바비인형이 실제로 제작되고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바비인형의 모델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백인 중심의 미인관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바비인형이 재현하는 그 미적 표준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바비인형은 작은 장난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대사회의 지배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대한 현상의 부분인 셈이다.

소나기

2004 아테네 올림픽이 남긴 아쉬운 점은?



△축구 8강에서 파라과이 패했던 것 너무 아쉬워 눈물이 날 정도였다.
△체조 편파판정, 참을 수 없다.
△빠앗긴 금메달을 돌려받고 싶다
△유도 금메달 4개 도전 실패한 점.
△올림픽 기간 아테네에 가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다.
△북한이 아직까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점. 계승희 선수... 아쉽다.
△남, 북이 단일팀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새벽에 경기하는 점. 다음 올림픽은 북경에서 하니 다행이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 외에도 외국의 명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올빼미가 돼 버린 점.
△너무 금메달에만 목숨을 걸고 이슈화하는 우리 사회 풍토.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과거사 규명과 경제 살리기의 허실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과거사 규명'과 '경제 살리기'이다. 여당에서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경제부터 살리면서 여당의 논리가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난한다. 여대 야, 정치대 경제, 단죄론대 불가피론이라는 이분법이 언론을 메우고 있다. 당장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경제살리기'는 뒷전이고, 친일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세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논리는 마치 서민들의 생활을 무척이나 생각하는 듯한 포즈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란 무엇인가? 장시간 노동, 저임금이 시달리며 약속받았던 풍요로운 삶인가, 외국자본의 불이거 '기일'하기 좋은 나라인가. 국민들의 목숨까지 '경제개발'의 제단

에 바치게 했던 그 '경제'가 무엇인가. 약화된 여론에 야당은 힘을 받게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여당에서는 '과거사청산' + '경제살리기'가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일 뿐이다. 누가 경제를 망쳤는지, 경제 때문에 역사청산이 어렵다는 것인지, 왜곡된 경제구조가 역사청산의 일부분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친일을 비롯한 역사적 범죄에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 또한 경제는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방패막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적절한 거대한 타협은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최진범(영문과 석사과정)

동아리 활동 지원금 확충이 필요하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2학기의 문턱에 들어섰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 동아리 구성원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여주는 전시회며 공연의 준비로 무척이나 부산해 보인다. 그 해의 성과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그 준비는 참으로 뿌듯할텐데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1년의 성과를 성심껏 다해 표현하자면 돈은 자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동아리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니 그렇다고 각 구성원들에게 5만원 넘게 내라는 요구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상황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고등학교의 동아리란 그야말로 이름뿐이었고, 지원금이라 할 것

도 없다. 대학진학을 위한 중간고장으로 전략학 버린 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는 그저 주마다 하루 있는 특별활동 시간을 위해 존재했다. 대학도 마찬가지인가? 대학이 '취업인 양성소'라는 논리가 우리의 현실인 것인가? 그래서 동아리는 '없으면 이상하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그 논리에 따라 동아리는 철없는 학우들의 모임이 되어버려서 9년 전의 지원금에 만족해야 하는가? 입시 지상주의가 만연한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는 진리와 이상의 실현에 있다고 믿고 있다. 현실에 물들지 않은 그 이상의 실현에 동아리 활동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의식과 자세를 기대해본다.

김태원(사과대1)

봉사활동 체험수기

다른 세상을 보게 한 값진 경험

막상 봉사활동을 신청해놓고 보니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과연 사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의구심이 들었다. 그동안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관계 기관들이 다양해서 나의 성향과 능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특성과 분야가 다르고 다양했던 것이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험과 실무적인 현장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찾던 중 결국 행사 모니터링을 요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을 선택했다. 이 곳에서의 활동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유익하고 색다른 경험들을 선사해 주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맹 총재님이 법률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지식이 왜 필요하며, 알아져야 할 기본법률체제와 그에 대한 선입관 등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 후 다양한 재판모니터링, 뇌성마비 장애인복지연구,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 각종 학술발표회 등에 참여했는데 참여 자체 만으로도 크든 작든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

특히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점은 단 몇 분, 몇 초만에 인생에서 중대한 부분의 희비가 결정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또 사회복지, 노동자 인권을 위한 세미나, 기자회견 등에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사회의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간절히 원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생소한 장소와 행사에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느끼는 색다른 경험을 넘어 나와 너,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참여자가 되고자 하려는 새로운 안목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이다. 아직 봉사활동에 관해 부담감을 느끼거나 다양한 선택의 범위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의 유익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다.

민준기(문과대 영문3)

대한민국 정예 육군장교로!



대학 군 정학생, 여군사관 후보생 ·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 선발 모집기간
- '04 하반기 대학 군 정학생 : 8. 23 ~ 9. 18
- '05 여군사관 후보생 : 9. 13 ~ 10. 9
- '05 학사사관 후보생 : 9. 13 ~ 10. 30
지원서 교부 및 접수 학군단 행정실(교내 원홍별관에 위치)
문의전화 (02) 2260-8537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학생중앙군사학교)

제112(동국대)학생군사교육단

2004년 하반기 대학 군장학생 모집

선발인원	1학년 : 000명
지원자격	· 입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이상 27세이하인 자 - 1학년(4년제) : '88. 7. 31 ~ '80. 8. 2 출생자 · 4년제 대학 중 1학년 재학생 · 학기별 성적이 평점 2.0이상, 신장학점 80%이상 취득자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8. 23(월) ~ 9. 18(토)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 서약서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3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수능성적 증명서 1부(입학당시 적용한 수능) - 대학 확인용 성적 증명서 1부 - 호적등본 3부, 주민등록등본 4부 - 칼라사진(4.5cm 탈모상반신) 4매 - 복무연장 지원서 - 재정보증인 관계서류 각 1부 (직계존속 재정보증인은 불가)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산점 증명서류 각 1부
선발	· 수능성적 · 면접평가 · 대학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64~195cm, 체중 : 46~120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단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0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0미만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 '04. 10. 23, 최종 합격자 : '04. 12. 18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2005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인원	000명
지원자격	· 입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이상 27세이하인 자 -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예비역은 30세 이하 · 4년제 대학 졸업자('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9. 13(월) ~ 10. 30(토)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3부 - 수능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포함) - 전연세 사진(4.5cm 탈모상반신) 3매 - 병역 중 또는 병적증명서(타군출신은 해당 군 함모 출장 추천서) - 국가유공 / 장기간군 군인자녀, 특기 / 국위선양자 확인서
선발	· 수능성적 · 면접평가 · 대학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64~195cm, 체중 : 46~120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단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0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0미만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 '04. 12. 24, 최종 합격자 : '05. 3. 5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2005년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인원	000명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03. 7. 1) 만 20세이상 27세 이하인 미혼 여성 ('77. 8. 1 ~ '85. 7. 31)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5.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9. 13(월) ~ 10. 9(토) · 장소 : 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입학당시 수능성적 증명서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 /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3부
선발	· 수능성적 · 면접평가 · 대학성적 · 인성검사 ·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55~183cm, 체중 : 45~87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단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0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0이하
합격자 발표	인터넷 게재 및 개별통지 예정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달하나 천강에

시련은 나무를 강하게 만든다



오정수 산림자원학과 교수

중국을 통일해서 청나라를 만들었던 여진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족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불과 몇 세기만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 현재는 민족 자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결국로 보기에 잘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식물들의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식물들의 사회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가면서 살아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의 사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화산이 폭발하거나 산불의 피해를 입게 되면 척박해진 땅에 햇빛을 필요로 하는 일년생 풀이나 다년생 풀들이 무성해진다. 이 풀들 틈으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싸리나무와 같은 공과식물들이 들어와 무성하게 자라고, 이들이 무성해지면 다시 이들 틈에서 소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는 침엽수들이 자라게 되어 숲을 이룬다. 또다시 침엽수 사이에서 자라던 어린 참나무들은 결국은 소나무를 이기고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참나무 그늘에서도 잘 자라

는 서어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다시 참나무를 이기게 되어 숲의 왕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서어나무 이후에는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 숲이 큰 변화 없이 안정을 이루게 되므로 이와 같은 숲을 극상림(climax forest)이라고 부른다

햇볕과 양분에 의한 식물들 간의 치열한 싸움과 변화를 살펴보다 보면 식물들의 사회가 인간 사회보다 더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질서정연함에 놀랄 때도 있다.

그런데 드물지만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온 산이 참나무나 서어나무 숲으로 바뀌었는데도 산 정상 바위틈에서 독자청청하게 살고 있는 소나무들이 그 경우이다.

왜 산 정상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환경에 있다.

바위틈은 흙과 영양분, 수분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참나무들이 잘 살지 못하고, 그 결과 소나무들은 참나무의 공격을 물리치고 어렵게 그들만의 세상을 계속 유지하

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비옥한 땅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던 동료 소나무들이 모두 참나무에게 참패하여 사라졌지만 바람과 추위, 갑증과 배고픔이라는 많은 시련을 이기고 어렵게 살아온 바위 틈의 소나무들은 참나무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그 세력을 유지하여 후세들에게 예전에 이곳이 우리의 영토였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을까? 때로 시련 앞에 굴복하여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신력 하나로 시련을 극복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다고 느끼는 오늘 날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잠깐 눈을 들어 산 정상 바위 틈에서 푸르게 자라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권하고 싶다.

이 나무들을 통해 시련이 나무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시련에 굴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그릇으로 자라주기를 염원하며 글을 마친다.

사설

공간논의 학생참여 필요하다

중대필동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대략적인 계획이 수립됐다. 올해 중으로 업체를 선정 후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소위원회가 구성돼 공간사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확충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간사용 논의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단 이천을 차지하는 재학생 의견수렴이 배제된 것이다. 공간소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몇몇 교수와 직원들이 전부일 뿐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학생처 소속 직원이 참석해 기속사건립이 학생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대필동병원 관련 설문조사도 없었고 학생회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않은 의견이 전체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해 구도서관 공간논의과정에서 학생대표자가 참석하고 학생 의견이 반영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배제돼 더욱 의아할 뿐이다. 물론 지난 분관점거사태 이후 학교측과 총학생회가 서로 등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까지 생략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학교만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학생회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사용방안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학생대표로서 학교측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경우 결국 학생회는 논의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중대필동병원 매입과 리모델링은 우리학교 고질적 문제인 공간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구성원들의 분쟁으로 무산시키지 않도록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는 민주적 절차의 확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메아리

올림픽의 위력

▲얼마 전까지 올빼미족이 유행이었다. 초저녁에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며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생활이 널리 퍼졌다. 기업들은 야식경쟁에 열을 올렸고 야행성 아르바이트도 급증했다. 한동안은 아침형 인간이 유행이더니 열대야와 올림픽이 겹친 지난 2주 동안은 올빼미족이 대세였나 보다.

▲올림픽의 성대한 잔치가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은 잠시나마 올빼미족 생활에서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일과를 시작하게 됐다. 이처럼 사람들의 일상이 오락가락했을 만큼 지난 17일 동안 세간의 관심이 온통 아테네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림픽에 가려 주요 사건·사고가 묻혀지는 않았나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일간지와 방송의 첫머리에 올림픽 메달 소식으로 가득할 때 정부는 지난 28일 자이툰부대를 비밀리에 파병하고, 한반도에는 미 공군 전폭기가 배치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것이다.

예전 같으면 '추가파병반대' '한반도 평화구축' 등의 외침으로 나라안이 들쭉날쭉을 벌도 한테 올림픽의 영향인지 메달의 힘인지 아예 공론화조차 안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한창 논쟁을 벌이던 과거사 청산문제와 국가간의 감정대립까지 날고 있는 중국의 역사왜곡문제도 모두 뒷전으로 밀린 듯했다.

▲그리고 보면 올림픽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관심사를 하나로 집중시키는가하면 판정사비와 약물과중, 아름다운 꼴찌 등 술한 화제거리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어마어마할 정도이니 올림픽이 세계를 들쭉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었으며 중국도 이런 경제발전의 동력을 얻고자 올림픽 유치에 그토록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아~ 벌써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기다려진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오서요

한용운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서요. 당신은 당신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시집 <님의 침묵>(1926)에서

건학 100주년이 다가온다. 동국문학 100년의 세월이 밀려온다. 한국문학을 이끌어온 동국의 문학 수레들이 서울 한복판에, 경주 남산 기슭에, 우당탕탕 큰소리로 달려온다. 자동차 소리도 비행기 소리도, 불성사납게 싸우는 사람들의 모든 소리도, 그 크고 시원한 소리의 수레바퀴 아래 꺾이고 휘둘러져 날아가 버린다. 백년의 소리, 그러나 뿌듯한 자랑과 설레는 감격만으로 맞을 일은 아니다. '당신' 기다리는 마음 함께 모아야만 한다. 간절해야 하고 씩씩해야 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언제 우리의 때로이며 우리에게서 떠날 적이 있던가. 만해스님께서는 이렇게 노래하셨다. '아아, 남은 누지마는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하였읍니다.' 당신은 바로 '나'이자 '우리'인 것이다.

윤재웅
시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적극적인 독자참여와 유도 아쉬워

지나오는 개강을 맞아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여러 행사들을 이야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새로운 정보 전달이란 신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여론·칼럼 섹션에서는 개강을 맞은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개강을 한 학생들의 자세나 의무, 강의에 대한 예의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앞장 2학기를 만들 다짐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고취시키게 했다.

이은진(신방3)

하지만 앞으로는 독자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부족했고, 새로운 소식들에 밀려 정작 2학기 동안 동대신문이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기사 역시 부족했다. 다음 호에서는 독자와 함께 만드는 동대신문의 미래에 대한 기사를 기대해 본다.

퇴임 교직원 인터뷰는 학교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애뜻함을 고취시켜 준 것 같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대신문이 지닌 역사만큼 양질의 기사로 채워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동국만평

이호선 korea2324@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김주환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김본철	구독문의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	장류변		
편집장	최성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당신이 청춘으로
이 땅을 지킬 때,
농협은 생명산업과 금융산업으로
이 땅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농산물시장과 금융시장이 열려있는 지금, 누군가는 우리의 생명산업과 금융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농협은 순수 우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품질향상으로 세계 경쟁력을 높여 이 땅의 생명산업을 보호하고, 100% 순수 국내자본의 은행, 보험, 카드, 디지털 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로 이 땅의 금융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농협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uman Bank, Human Life
농협
www.nonghyup.com

매체비평

광고 편

모바일 광고

확인된 개개인 타겟 가능
스팸·비싼 사용료 부담



매스미디어와 차별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은 개인 미디어적인 성격이다. 최근 웹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 미니홈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모바일은 그 자체가 순수 개인 미디어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핸드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미디어도 모바일처럼 사용자에 밀착된 것은 없다. 그래서 일찍부터 모바일은 확인된 개인 한명 한명을 타겟으로 하는 핀 포인트(Pin Point)마케팅의 최적화 미디어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신문은 능가하는 커버리지 및 사용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의 모바일 광고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는 이메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인 미디어로서 많은 장점을 보유했던 이메일은 현재 스팸 메일로 인해 매체 가치가 아주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은 이메일과 차별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당 평균 5개 이상의 이메일 계정에 비해 핸드폰은 1대이며, 실명이고 거의 모든 메시지가 사용자에 의해 확인된다. 모바일은 매스미디어에서 이탈하고 있는 10~20대 젊은층들에게 항상 도달할 수 있고 광고 유형도 동영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최근 범법하는 모바일 스팸으로 인해 모바일 광고에 대한 비난이 많다. 광고는 매체와 소비자간의 윈윈(win-win)을 기반으로 한다. 모바일 광고는 소비자, 매체, 광고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모바일은 사용료가 가장 비싼 매체이다. 모바일 광고는 TV처럼 사용료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반면 스팸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혜택을 가로채는 도적과 같은 것이다.

모바일 광고의 활성화는 스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소비자의 혜택을 증가하는 2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기업의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료를 감면시키고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이는 TV와 신문이 하는 방향과 같은 것이다. 현재 모바일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의 보급은 비싼 사용료라는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 엔터테인먼트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까지 모바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 문제는 비싼 사용료이다.

단순한 통화 수단인 아니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채널로서 모바일이 부각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모바일 광고가 사용자들의 혜택을 증가하고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발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회사와 관계기관의 정책적 협력이 요청되며,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라는 인식을 탈피시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신승익

(주)바온드마케팅그룹 대표이사

한 편의 영화처럼 ... '충무로'

음식점, 영화관 등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아 우리학교 학생들로 붐비는 충무로. 이처럼 충무로는 우리 대학과 인연이 깊으며 예전부터 '영화의 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충무로 역에는 역대 대중상 시상식 사진이 전시돼 있고 '오재미동'이라는 영상센터가 있어 영화배우가 물론 풍자다. 그렇다면 충무로는 어떻게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거리로 자리 잡게 됐을까.

충무로 영화산업의 발전

흔히 '영화의 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충무로 중에서도 '3가'를 가리킨다. 건물로 살펴봤을 때 매일경제신문사(구관), 명보극장, 상용빌딩, 극동빌딩이 만드는 사각형의 공간이다. 이곳은 일제시대부터 근저 명동과 함께 본정(일본명 혼마치)으로 불리며 변화해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자연히 사람들이 모였다. 특히 충무로 3가에는 영화제작자 배우들이 모이는 다방이 많았다. 5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던 신상옥, 한형모 감독 등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충무로 '영화의 거리'의 시작이다.

1960년대에 들어 정부는 분산된 영화사를 통합하는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영화 4편을 제작할 경우 수입영화 1편을 할당하는 국산영화제작 장려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영화사들이 10여개에서 100여개로 늘어났고 충무로는 최대 번성기를 누린다. 충무로역 8번 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30년간 일을 한 임영문(52세)은 "예전에는 충무로에 영화사와 영화배우가 많아서 거리가

지금보다 활발했다"고 회상한다.

영화의 거리, 추억속으로

87년 문화개방 후 우리 영화는 위기에 처한다. 흥행이 좋은 외국영화 한편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저예산으로 제작된 우리 영화는 흥행성, 작품성 등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영화계의 침체로 이어졌고 충무로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90년대 초, 외국영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 영화계는 변화를 맞이한다. 우선 극장이 기존 단관상영극장에서 10여개의 상영관을 가진 복합상영극장(멀티플렉스)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관객을 확보하여 흥행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영화관과 영화사는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충무로에는 영화사들이 많지 않다. 강우석 감독의 '씨네마 서비스'나 '씨네2000(대표 이준연)' 등 소수만이 대형 빌딩 안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충무로에서 영화산업의 중심지라는 옛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복합상영관으로 바뀐 대한극장과 명보극장, 아직 옛 모습대로 남아 있는 단관상영극장인 스키라 극장이 예전 충무로의 명성을 보여줄 뿐이다.

다시 부는 영화의 바람

요즘 충무로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영화의 거리'라는 명성을 되찾고자 영화감독·배우·지역상점 주인 등 충무로 관련 사람들이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추진위원회

회(이하 영추위)'를 꾸린 것이다.

영추위는 앞으로 2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충무로 3가 일대를 영화의 거리로 다시 꾸밀 예정이다. 먼저 도로에 영화의 명장면들을 집어 넣은 유리 보도를 만들고, 스타들의 핸드프린팅, 사진 등 거리예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영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제1회 축제는 오는 10월 23일 명보극장 사거리에서 열린다. 김갑의(영화영상 64졸) 회장은 "이를 통해 영화제작·편리 및 영화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역시 영화·영상분야 특성화 사업으로 '충무로·강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 CC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리 학교는 충무로에 인접했음뿐 아니라 그동안 영화·영상분야의 전문인력을 많이 배출해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무로는 아직 우리나라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리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학교와 인접해 관련 문화콘텐츠 사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앞으로 우리 학교와 충무로가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기 기대해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① 복합상영극장으로 바뀌기 전 대한극장의 모습(2000년).
② 단관상영극장으로 남아있는 스키라극장.
③ 명보극장사거리에는 대중상 기념비.
④ 옛영화 포스터를 간판에 부착한 충무로 3가 상점들.

충무로 자세히 들여다 보기

충무로는 행정구역상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퇴계로 5가 사거리에서 이르면 1가에서 5가까지 나뉘어져 있다. 충무로역이 위치한 큰 길은 '퇴계로'이며, 충무로는 퇴계로를 가운데 두고 대한극장 반대편 안쪽 길이다.

1946년 10월 1일 충무로 인근 인현동에서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의 호를 따서 지어진 이름으로, 일제시대에는 명동과 함께 본정(本町)으로 불려 변화했다. 특히 일본사람들이 많이 거주했고, 해방 후 국회가 광화문에 있을 때는 진양상이 부근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살았다.

충무로 하면 영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현재는 인쇄소와 출판소, 기획사, 그리고 퇴계로에는 애견시장이 발달해 있다.

인쇄소는 영화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영화산업과 연계돼 일찍이 충무로 4가 일대에 들어서 번성했다. 그러나 영화사가 떠나고 요즘은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해 기존의 홍보·기획업무를 대신함에 따라 인쇄업종이 쇠퇴하고 있다.

애견시장은 그 역사가 오래돼 1945년 김수복씨가 명동에 '애조원'이라는 상점에서 애견과 새를 팔기 시작했다. 이후 그들이 김유천씨가 55년 퇴계로 3가에 애견센터를 열었고 뒤이어 1963년 제일동물병원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애견시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대 애견견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문화단신

년번별 페스티벌

다이나믹한 열정을 여는 21세기의 해방구 '년번별(mon-verbal)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린다.

총 4개의 극이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하늘아래 소리 '천고' △집단 신포 퍼포먼스 '타오' △강만홍의 '두타'로 구성돼 각 4일씩 열린다.

다양한 우리 음악에 현대적 리듬을 가미한 퓨전 타악 공연인 '년번별 페스티벌'은 우리 전통 타악기, 춤, 퍼포먼스와 뮤지컬 등이 어우러져 한바탕 신명을 풀어낼 예정이다.

동아리 홍보·정기공연

개강과 함께 새내기 유치를 위한 동아리들의 홍보 공연이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12시에는 수화동아리 '손짓사랑회'가 상록원 앞에서 홍보공연을 한다.

또한 9월 2일 오후 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해화관 앞마당에서는 댄스동아리 O.D.C가 3~4곡의 합창 및 가요 안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 기타 동아리 '현어울'은 제23회 현어울 정기연주회를 9월 4일 오후 6시에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동국사랑을 실천합니다



동국사랑 나눔터란 동국대학교와 긴 세월을 함께 해 오며 동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덕골의 모범업소로서 동국가족의 일원이 되어 상호 협력발전의 뜻을 함께 하는 업소입니다.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산유화 (한정식전문점)



• TEL 2272-5457
2273-1989
• 엠버서더호텔 맞은편 언덕 위에 위치
• 영업시간 12:00~23:00
• 예약 가능
• 휴무일 큰명절

옥돌정 (한국음식전문점)



• TEL 2266-2409
• 제일병원 사잇길로 퇴계로 방향 우측으로 한글목 50미터 위치
• 영업시간 11:00~22:00
• 예약 가능
• 휴무일 없음

담소원 (한국음식전문점)



• TEL 2265-5981
• 충무 초교 앞 유료주차장 옆 위치
• 영업시간 11:00~21:30
• 예약 가능
• 휴무일 공휴일

느티나무 (고기 전문점)



• TEL 2279-2439
• 엠버서더 호텔 맞은편 산유화 뒷쪽으로 20미터 위치
• 영업시간 9:00~23:00
• 예약 가능
• 휴무일 큰명절

백상 (한국음식전문점)



• TEL 2263-7700-1
• 동국대 후문에서 나서서 오른쪽으로 50미터 지점 위치
• 영업시간 7:00~22:00
• 예약 가능
• 휴무일 없음

강서 (중국요리)



• TEL 2266-0466
• 동대 후문에서 왼쪽 녹두거리 쪽으로 50미터 위치
• 영업시간 10:30~22:00
• 예약 가능
• 휴무일 둘째, 넷째 수요일

가또마들렌 (케이크 카페)



• 전화번호 2269-5833
• 동국대 후문에서 왼쪽으로 50미터 녹두거리에 위치
• 영업시간 6:30 ~ 새벽 1시
• 예약 가능
• 휴무일 없음

동국돼지마을 (고기전문점)



• TEL 2279-2352
• 하이마트골목으로 10미터 전방 왼쪽 위치
• 영업시간 10:00~새벽 1시
• 예약 가능
• 휴무일 큰명절

손가네 민물장어 (장어 전문점)



• TEL 2269-9953
• 녹두사거리에서 남산방향 30미터 지점 바이데워 맞은편 골목
• 영업시간 10:00~22:30
• 예약 가능
• 휴무일 매주 일요일